

일본 역사교과서의 고대 한일관계사 서술 분석

- 후소사(扶桑社)판 교과서를 중심으로 -

朴恩榮*
kitsne74@naver.com

<目次>

1. 들어가며
2. 후소사판 교과서의 고대 한일관계사 서술 분석
3. 마치며

主題語: 역사교과서(History Textbook), 한일관계사(History of Korea-Japan Relations), 임나일본부설(Theory on Japanese Presence in Imna), 도래문화(Transmitted Culture), 역사왜곡(Slanting of History)

1. 들어가며

일본 문부과학성은 戰後 최초로 2006년 12월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어 그 취지를 반영한 학습지도요령(2008.03)과 해설서(2008.07)가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2011년 3월 30일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다.¹⁾ 이번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발행하는 곳은 총 7개 출판사²⁾로 이 중에는 자국중심의 역사관에 기초한 교과서 기술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로 약칭)과 ‘교과서 개선의 모임’(이하 ‘교개모’로 약칭)이 각각 自由社와 育鵬社를 통해 출판한 교과서도 포함되어 있다.³⁾ 새역모는 1996년 결성된 이래 2001년 扶桑社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통해 유래가 없을 정도로

* 동의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 1) 일본이 전면적인 개정을 한 이유는 1997년판 학습지도요령에서부터 강조하여 온 ‘역유교육’이 ‘학력저하’로 사회 문제화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학습지도요령 개정에서는 ‘확실한 학력을 확립하기 위해’ 사회과를 위시한 주요 과목의 수업 시수가 증가, 중학교 사회과 경우 지리 15단위 시간(105→120), 역사 25단위 시간(105→130), 공민 15단위(85→100)로 역사적 분야의 수업 시수가 많이 늘어났다.
- 2) 검정 통과 출판사는 東京書籍, 日本文教出版, 帝國書院, 教育出版, 清水書院, 自由社, 育鵬社 등이다.
- 3) ‘새역모’는 2005년 채택율이 0.4%에도 못 미치자, 이에 대한 진단과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일어난 내부 분열로 ‘새역모’(藤岡信勝 회장)와 ‘교개모’(八木秀次 회장)로 나뉘어졌다. ‘새역모’측은 기존의 파트너인 扶桑社와 결별하고 自由社와 새롭게 손을 잡았고, ‘교개모’측은 扶桑社의 자회사로서 ‘育鵬社’를 설립하였다.

강한 자국사 중심주의, 서양 중심주의적 역사인식을 반영한 교과서 기술로 주변 국가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2001년, 2005년, 2009년, 2011년 검정에 합격을 했다.

본고에서는 扶桑社 관련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⁴⁾의 고대 한일관계 기사 중 논란이 되는 부분에 나타난 서술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扶桑社 관련 교과서의 고대사 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비판과 지적이 되고 있다.⁵⁾ 이러한 기존의 연구에 유의하면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발행된 교과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올바른 서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후소사판 교과서의 고대 한일관계사 서술 분석

2.1 농경문화의 전래

한일 간의 지역 및 국가 사이 교류의 시작은 이미 신석기시대 이래 한반도 남부지역과 일본열도의 九州地域 등에서 나타나는 토기 등 유물의 유사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일본문화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설정되는 弥生文化는 弥生 토기 및 농경, 금속문화로 특징짓는데, 그 문화의 기원지가 한반도 지역이라는 것은 일찍부터 확인된 사실이다.⁶⁾

4) <표 1> 분석 대상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구분	집필자	서명	출판사	검정년도
①	西尾幹二 外	新しい歴史教科書(市販本)	扶桑社	2001년
②	西尾幹二 外	新しい歴史教科書(市販本)	扶桑社	2005년
③	加瀬英明	日本人の歴史教科書	(株)自由社	2009년
④	藤岡信勝 外	新しい歴史教科書(市販本)	(株)自由社	2011년
⑤	伊藤隆 外	新しい日本の歴史	(株)育鵬社/(株)扶桑社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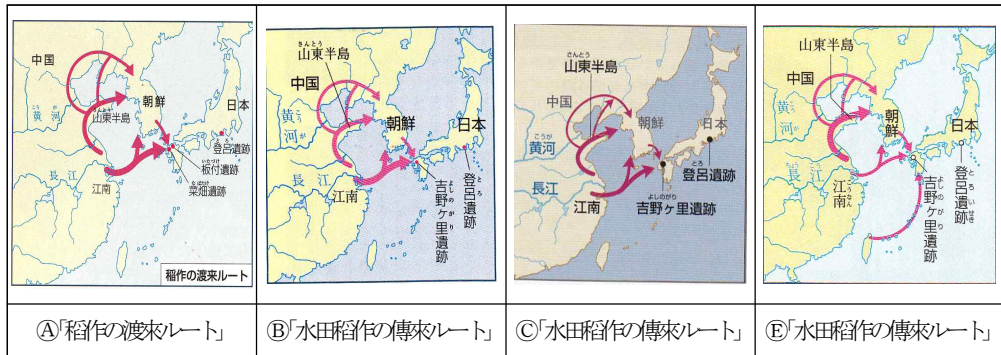
- 5) 서영대(2001)「日本 中學校 歴史教科書の 韓國古代史 敍述과 문제점」『고조선단군학』5 ; 연민수(2005a)「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古代史 서술과 歴史認識」『한국사연구』129 ; 이근우(2008)「『新しい歴史教科書』의 역사인식과 선사·고대사 서술」『일본역사연구』27 ; 이재석(2009a)「09년도 ‘새역모’ 역사교과서(自由社版)의 일본고대사 서술 검토」『역사교육논집』43 ; 이재석(2009b)「‘새역모’의 일본 古代史 구상의 특질과 문제점-自由社 교과서 및 扶桑社〈교사용 지도서〉를 중심으로」『한일관계사연구』33 ; 김은숙(2011)「2011년 검정통과 일본 중학 역사교과서의 고대 한국관련 서술내용 분석」, 한일관계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 나행주(2011)「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역사관과 고대사 서술-2011년 검정통과본의 분석을 중심으로」『동국사학』51 ; 연민수(2011)「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古代史像과 歴史認識」『역사교육논집』47 ; 李成市(2001)「古代史の問題點は何か」『歴史教科書何が問題か』, 岩波書店 ; 勅使河原彰(2005)「歴史教科書は古代をどう描いてきたか」『新日本出版社』등 다수.

- 6) 조법중(2010)「야요이문화의 기원과 한반도 농경·금속문화」『한일역사의 쟁점 2010』, 경인문화사,

일본 역사교과서에서는 내용과 성격에는 차이가 있지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표 2〉 농경문화의 전래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 내용

검정연도	출판사	서술 내용
2001	㉠扶桑社	〈米づくりの始まり〉ただし、約2400年前の縄文時代の末ごろになると…①長江(揚子江)流域の江南を源流として、水田稲作は伝えられたと考えられている。渡来のルートは、長江下流から北九州へ直接渡ってきたか、または山東半島から朝鮮をへて南下して渡ってきたか、そのいずれか、あるいは両方の可能性が高い。〈西日本から東日本へ〉②同じころに大陸から青銅器や鐵器も伝わった。やがて国内でも生産が始まり…(pp.28-29)。
2005	㉢扶桑社	〈水田稲作の始まり〉すでに日本列島には、①縄文時代に大陸からイネがもたらされ…紀元前4世紀ごろまでには、灌漑用の水路をともなる水田を用いた稲作の技術が九州北部の傳わった(p.24)。〈弥生文化〉②稲作とともに、青銅器や鐵器などの金屬器も大陸から伝わり、やがて国内でも生産が始まった(p.24)。
2009	㉡自由社	〈水田稲作の始まり〉すでに日本列島には、①縄文時代に大陸からイネがもたらされ…紀元前4世紀ごろまでには、灌漑用の水路を伴う水田を用いた稲作の技術が九州北部の傳わった。〈弥生文化〉②稲作とともに、青銅器や鐵器などの金屬器も大陸から伝わり、やがて国内でも生産が始まった(p.22)。
2011	㉠自由社	〈水田稲作の始まり〉日本列島には、①すでに縄文時代に大陸からイネがもたらされ、九州の菜畑遺跡では約2500年前に、灌漑用の水路をともなる水田稲作が行われていたあとが見つかっている。〈弥生文化〉②さらに、青銅器や鐵器などの金屬器も大陸から伝わり、のちには国内でも生産が始まった。③原料の鐵は朝鮮半島から輸入されたが、その後中國地方で砂鉄から鐵をつくる、たたら製鐵の技術が発達した(p.36)。
	㉣育鵬社	〈水田による稲作〉わが国には、①すでに縄文時代末期に大陸からイネがもたらされ、畑や自然の湿地で栽培が行われていました。その後、紀元前4世紀ごろまでに、灌漑用の水路にもたらされると、稲作はしだいに広がり、東北地方にまで達しました。…②青銅器や鐵器などの金屬器も大陸から伝わり、国内でもつく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p.24)。



〈그림 1〉 수전도작의 전래 경로

弥生文化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벼농사의 전래에 대해 일본학계는 水田稻作 개시시점과 도작농경의 전래 경로에 대한 논의를 한반도설·강남설·남방설 등 벼농사 발생지역과 연결시켜 전파 경로를 다각화하고, 동아시아적 규모로 확대해 일본문화의 다양성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는 한국과 일본지역 출토 벼 품종인 短粒形이 갖는 육종학적 특성, 경작기술을 보유한 인간집단의 존재, 그리고 일본 서북 九州地域에서만 편재하고 있는 지식묘가 한반도의 남부지역 형태와 연결되는 형식인 바둑판식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즉 이 같은 弥生文化 형성의 계통을 확인시켜주는 물적 자료로 弥生文化의 전래는 한반도로부터 직접 전래된 것으로 정리되었다.⁷⁾

그런데도 弥生文化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 한반도 계통 사람의 일본열도 이동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이 ①-①에서는 ‘장강(양자강)유역의 강남’, ②-①, ③-①, ④-①, ⑤-①은 ‘대륙’으로만 표현하여 한반도와의 직접적 관련성을 배제하였다. 그리고 水田稻作 농법의 주된 경로는 한반도→규슈 북부가 일반적 견해인데 중국→강남 경로가 주된 경로로 되어 있으며, 산둥→한반도와 강남→규슈 북부 전래 경로를 동일하게 표시한 점은 달라진 것이지만 한반도→규슈 북부 경로는 여전히 부차적인 경로로 표시되어 있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본다. 최근에는 한일 고고학계 모두 한반도 남부 전래설이 정설로 굳혀지고 있다. 현재 弥生時代의 가장 오래된 수도경작 농경 유적인 기원전 5-4세기의 板付 유적에서 출토한 홍도, 삼각도, 유구석부, 유병식마제석검, 석촉 등은 한국 무문토기 시대 초기 유적지인 송곡리 유적에서 출토한 유물과는 같지만 이 시기 중국에서 사용되던 것과는 다르며, 장강(양자강)유적에서 일본으로 직접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는 없

7) 조범중(2010)「앞의 논문」, pp.94-95

때문이다.⁸⁾

그리고 벼농사문화의 전래는 농업기술만이 아니라 이에 부수된 많은 문물이 동반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도작과 더불어 청동기와 철기 등의 금속기도 대륙으로부터 전해져, 국내에서도 생산이 시작되었다”라고 ㉠-㉡~㉢-㉣까지 모두 다루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여전히 ‘대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한반도와의 직접적 연관성을 회피하고 있으며, ㉤-㉥에서는 “원료의 철만은 조선반도에서 수입하였다”라고만 적고 있어, 향후 서술내용의 정확성 및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또한 문화 요소의 이동 사실은 기술하고 있으나 정작 그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던 사람의 이동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통상 오늘날의 일본인은 남방계인 繩文人과 북방계의 弥生人の 혼혈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⁹⁾ 따라서 弥生時代の 기술에서 弥生人の 등장 문제 및 오늘날의 일본과의 계통 관련성 등을 언급하는 것이 보통인데도 언급을 회피하는 이면에는 한반도인의 이동을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¹⁰⁾

2.2 帶方郡과 2세기경의 동아시아

〈표 3-1〉 韓國史의 시작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 내용

검정연도	출판사	서술 내용
2001	㉠扶桑社	「2世紀ごろの東アジア」(p.32)
2005	㉢扶桑社	「2世紀ごろの東アジア」(p.26)
2009	㉣自由社	「2世紀ごろの東アジア」(p.26)
2011	㉤自由社	「シルクロード(2世紀ごろ)」(p.33) 「邪馬臺國の使者の推定経路」(p.38)
	㉥育鵬社	「1世紀ごろの東アジア」(p.26)

漢이 郡縣을 설치하기 이전에 한반도에는 국가로서 고조선이 있었지만, 일본 역사교과서에서는 韓國史와 관련된 첫 자료로 「2세기경의 동아시아」(㉠, ㉢, ㉣), 「아마타이국 사자의 추정 경로」(㉤), 「1세기경의 동아시아」(㉥)라는 지도에서 한반도 북부 지역의 ‘고구려’라는 나라의 이름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렇다고 韓國史의 시작을 고구려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의「실

8) 寺澤薫(1996)「日本稻作の系譜と照葉樹林文化論」『季刊考古學』37; 寺澤薫(2000)『日本の歴史』2, 講談社, pp.37-38; 김은숙(2011)「앞의 논문」, p.20 재인용.

9) 金關丈夫(1976)『日本民族の起源』, 法政大學出版局; 中橋孝博(2002)『倭人の形成』吉川弘文館

10) 이재석(2009a)「앞의 논문」, p.267

크로드(2세기경)」라는 지도와 교과서 권말의 연표에서는 韓國史가 낙랑군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표시하고 있다(A, B, C, E-낙랑군, D-漢의 4군). 어느 교과서에서도 ‘고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을 중국에 의해 타율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중국은 ‘殷’, 일본은 ‘繩文時代’부터 표기하면서 한국은 그보다 늦은 중국의 한나라가 설치한 낙랑군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표기한 것이다.¹¹⁾

고조선과 관련해서는 『三國遺事』¹²⁾에서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帝王韻紀』¹³⁾, 『東國輿地勝覽』¹⁴⁾에도 기록되어 있다. 중국의 史書 『管子』¹⁵⁾, 『山海經』¹⁶⁾에서도 고조선과 관련된 기록들이 보이며, 고조선의 사회상을 알려주는 8조법이 수록된 『漢書地理志』¹⁷⁾도 있다. 이런 사료가 있음에도 위의 교과서들은 낙랑군 이외에 대방군까지 추가로 표시하고 있어, 은연중에 韓國史의 他律性을 강조하고 있다. 낙랑군을 비롯한 한사군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라면 고조선의 실체를 인정하고, 고조선이 衛滿朝鮮으로 계승된 후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 武帝에게 멸망하면서 설치된 행정구역이라는 것까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¹⁸⁾ 한반도가 漢의 지배를 받은 역사로 한국에 관한 서술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일본학계에서 고조선을 연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일본 역사교과서에서 과거 植民史觀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본다.

11) 송영심·오정현(2005)『일본의 역사왜곡 21가지』미르북스, p.144

12) 『三國遺事』卷1「紀異」1 古朝鮮 王儉朝鮮, “魏書云, 乃往二千載有壇君王儉立都阿斯達 經云無葉山, 亦云白岳在白州地, 或云在開城東, 今白岳宮是, 開國號朝鮮, 與高同時”

13) 『帝王韻紀』卷下「前朝鮮紀」, “初誰開國啓風雲 釋帝之孫名檀君(本紀曰 上帝桓因有庶子曰雄 云云謂曰下至三危太白 弘益人間敷 故雄受天符印三箇 率鬼三千而降太白山頂神檀樹下 是謂檀雄天王也云云 令孫女飲藥成人身 與檀樹神婚而生男 名檀君 據朝鮮之域爲王 故尸羅高禮南北沃沮東北扶餘穢與貊 皆檀君之壽也 理一千三十八年 入阿斯達山爲神 不死故也) 並與帝高興戊辰 經虞歷夏居中宸 於殷虎丁八乙未入阿斯達山爲神(今九月山也 一名弓忽 又名三危 祠堂猶在) 享國一千二十八 無奈變化傳桓因 却後一百六十四 仁人聊復開君臣(一作 爾後一百六十四 雖有父子無君臣) ; 『地理紀』, “遼東別有一乾坤 斗與中朝區以分 洪濤萬頃圍三面 於北有陸連如線(一作華句) 中方千里是朝鮮 江山形勝名數天 耕田鑿井禮義家 華人題作小中華”

14) 『東國輿地勝覽』平壤府, “本, 三朝鮮高句麗之故都, 唐堯戊辰歲, 有神人降太伯檀木下, 國人立爲君, 都平壤, 號檀君, 是爲前朝鮮, 周武王克商, 封箕子于此, 是爲後朝鮮, 傳至四十一代, 孫準, 燕人衛滿, 奪其地, 都王險城(險一作儉, 卽平壤), 是爲衛滿朝鮮”

15) 『管子』卷23「揆道」, “八千里之發朝鮮可得而朝也”; “發朝鮮地文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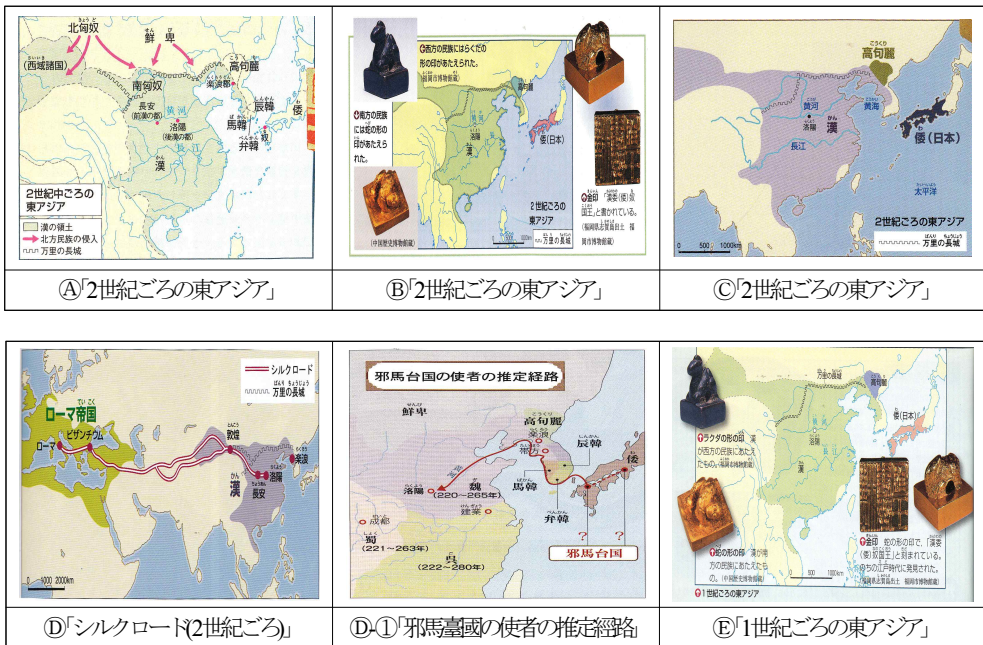
16) 『山海經』卷18「海內經」, “東海之內, 北海之隅, 有國, 名曰朝鮮”; 『山海經』卷12「海內北經」, “朝鮮在列陽東, 海北山南, 列陽屬燕”

17) 『漢書』卷28下「地理志」8下 燕郡, “樂浪朝鮮民犯禁八條…(中略)…相殺以當時償殺, 相傷以穀償, 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 人五十萬, 雖免爲民, 俗猶羞之, 嫁取無所辭…(中略)…是以其民終不相盜, 無門戶之閉”

18) 송영심·오정현(2005)『앞의 책』, pp.145-147

〈표 3-2〉 帶方郡과 2세기경의 동아시아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 내용

검정연도	출판사	서술 내용
2001	㉠扶桑社	「2世紀ごろの東アジア」(p.32)
2005	㉢扶桑社	「2世紀ごろの東アジア」(p.26) 〈魏志倭人傳に書かれている邪馬臺國のようす〉 中國の王朝が朝鮮半島に置いた郡で、中心地はソウルあたり(p.27)。
2009	㉡自由社	「2世紀ごろの東アジア」(p.26) 〈魏志倭人傳に書かれている邪馬臺國のようす〉 中國の王朝が朝鮮半島に置いた郡で、中心地はソウルあたり(p.27)。
2011	㉣自由社	「シルクロード(2世紀ごろ)」(p.33) 「邪馬臺國の使者の推定経路」(p.38)
	㉤育鵬社	「1世紀ごろの東アジア」(p.26)



〈그림 2〉 2세기경의 동아시아

㉠, ㉢, ㉡의 「2세기경의 동아시아」라는 항목의 지도에서 중국 漢의 영역을 한반도를 동서로 가르면서 그 반에 해당하는 서부로 하고, 남으로는 충청남도 일원과 전라북도의 일부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후의 ㉣는 「シル크로드 2세기경」, ㉤에서는 「1세기말경의 동아시아」로 항목명만 바뀌었고 지도 영역은 이전의 교과서와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 ㉡의

본문 상단과, ①-①의 「아마타이국 사자의 추정 경로」라는 지도에서 帶方郡의 중심지를 현재의 서울부근으로 비정하고 있다. 이 서술은 2001년(㉑)에는 없었던 것으로 2005년(㉒)부터 새롭게 등장하였다.

漢四郡이 설치된 시기는 漢이 衛氏朝鮮을 멸망한 기원전 108년이다. 漢은 옛 고조선의 영역인 樂浪郡, 眞番郡, 臨屯郡을 두고 이듬해에는 동북방의 濊의 땅에 玄菟郡을 두어 漢四郡이 성립되었다. 樂浪郡의 治所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금의 평양부근으로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¹⁹⁾ 문제는 眞番郡과 帶方郡이다. 당시의 한반도 남부지역은 삼한사회로 『三國志』韓傳에 따르면 마한 54개국²⁰⁾이 존재해 있었고 이들 지역은 경기도와 충청, 전라지방에 비정되고 있다. 2세기 중후반경인 桓·靈帝말기에는 韓, 濊가 강성하여 漢의 군현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군현의 백성들이 한국으로 유입되었다는 韓傳의 기록을 보아도 이 시기의 한강 이남지역을 중국 영역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帶方郡의 설치에 대해서 韓傳에는 建康연간(196~220)에 공손강이 屯有縣이남의 황무지를 분할하여 帶方郡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韓諸國은 낙랑, 대방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漢의 선진문화도 수용하면서 점차 정치적, 지역적 통합과 국가 형성의 길을 모색해 나간다.²⁰⁾ 帶方郡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황해도 봉산군 문정면에서 대방태수 張撫夷의 무덤과 그 부근에서 대방군치의 토성지가 발견됨으로써 봉산군 지역이 帶方郡의 중심지라는 것은 한국은 물론 일본 학계에서도 통설이다.²¹⁾ 따라서 「2세기경의 동아시아」지도에서 중국 漢의 영역을 한반도 동서로 가로 지르면서 남쪽으로 전라도 지역까지 포함하여 帶方郡의 위치서술을 한 것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2.3 백제와 신라의 건국 시기

〈표 4〉 백제와 신라의 건국 시기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 내용

검정연도	출판사	서술 내용
2001	㉑扶桑社	「進む國內の統一」…㉑14世紀である。ちょうどこのころ、中國は内亂で勢力が弱まっていた。その間に、朝鮮半島の北部では高句麗が強國となり、南部では百濟や新羅が台頭した。…㉒中國の影響力が弱まったこの時期に(p.35)。

19) 연민수(2005a)「앞의 논문」, p.175

20) 연민수(2005a)「위의 논문」, p.176

21) 礪波護·武田幸南(1997)『隋唐帝國と古代朝鮮(世界の歴史 6)』中央公論社, p.282에서 대방군의 故地를 “황해북도 봉산군 토성지”에 비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2005	㉔扶桑社	〈大和朝廷による國內の統一〉中國の歴史書で「倭国」とよばれていた日本は、 <u>㉑14世紀のころ</u> 、 <u>㉒この時期</u> 、中國では國內が分列して、對外的な影響力が弱まっていた。ちょうどその時期、朝鮮半島では、北部で高句麗が強國となり、南部では百濟や新羅が臺頭して、統一國家への動きが強まった(p.28)。
2009	㉕自由社	〈大和朝廷による國內の統一〉中國の歴史書で「倭国」とよばれていた日本は、 <u>㉑14世紀のころ</u> … <u>㉒この時期</u> 、中國では、國內が分列して、對外的な影響力が弱まっていた。ちょうどその時期、朝鮮半島では、北部で高句麗が強國となり、南部では百濟や新羅が臺頭して、統一國家への動きが強まった(p.28)。
2011	㉖自由社	〈大和朝廷による國內の統一〉中國の歴史書で「倭国」とよばれていた日本は、 <u>㉑14世紀のころ</u> … <u>㉒この時期</u> 、中國では國內が分列して、對外的な影響力が弱まっていた。ちょうどその時期、朝鮮半島では、北部で高句麗が強國となり、南部では百濟や新羅が臺頭して、統一國家への動きが強まった(p.40)。
	㉗育鵬社	〈中國と朝鮮〉 <u>㉑14世紀末</u> 、朝鮮半島では分立していた小國の統一が進み、北部には高句麗、南部には新羅と百濟があり、勢力を争っていました。… <u>㉒一方</u> 、當時の中國は南北朝時代で、南北に国々が分かれて争っていたため、朝鮮半島への影響力は弱まっていました(p.30)。

위의 서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백제와 신라의 건국 시기이다. ㉔-㉑~㉔-㉑에서 “4세기경, 조선반도의 북부에서는 고구려가 강국으로, 남부에서는 백제와 신라가 대두했다”라고 기술되었던 부분이, ㉔-㉑는 “4세기말, 조선반도에서는 분립하고 있던 소국의 통일이 진행되어, 북부에는 고구려, 남부에는 신라와 백제가 있어”로 표현이 바뀌었다. 백제와 신라의 건국을 『三國史記』에서는 각각 A.D.18년과 B.C.57년으로 전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늦게 잡아도 백제의 고대국가 형성은 3세기 이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4세기 近肖古王(346~375) 때 백제는 정복국가의 단계에 있었음을 생각할 때, 3세기 이전에 백제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신라도 4세기 이전에 고대국가 단계로 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할 때 4세기라고 한 것은 백제와 신라의 대두시기를 지나치게 늦게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²⁾ 물론 대두를 고대국가의 성립과 다른 의미로 사용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오해의

22) 한국학계에서는 문헌고증에 의해 백제는 3세기 중엽 고이왕 때에 연방제의 성격을 지닌 초기 고대국가로 성장하였으며, 4세기 후반 근초고왕 때에는 중앙집권화에 성공하여 성숙한 고대국가로 발전하였다고 보는 설이 유력하였고, 신라는 진한의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인 사로국에서 출발하여 4세기 후반 내물왕 때에 대외적으로는 고구려의 지원을 받고 대내적으로는 왕호로 마립간을 사용하면서 연맹체 조직을 한 단계 강화하여 대외적으로 고대국가처럼 기능하기 시작하였다는 설이 유력하였다(盧泰敦(1975)「三國時代の‘部’에 관한 연구」『韓國史論』2; 盧重國(1988)『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조범중(2010)「삼국의 건국시기 논의」『한일 역사쟁점논집』(전근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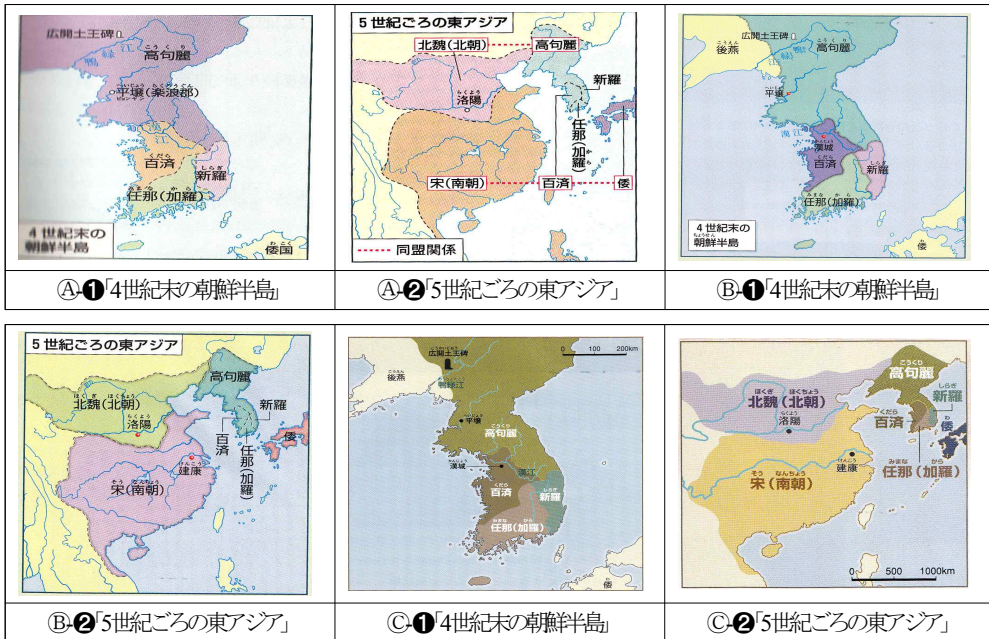
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 중국에서는 국가가 분열되어서 대외적인 영향력은 약해졌다”(A-②~D-②)라고 기술되었던 부분이 E-②에서는 “한편 당시의 중국은 南北朝時代로 남북으로 나라들이 나뉘어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약해지고 있었다”로 바뀌었다. 그런데 南北朝時代가 시작되기 이전에 과연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2.4 任那(가야)의 영역

〈표 5〉任那(가야)의 영역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 내용

검정연도	출판사	서술 내용
2001	㉠扶桑社	「4世紀末の朝鮮半島」(p.32), 「5世紀ごろの東アジア」(p.38)
2005	㉢扶桑社	「4世紀末の朝鮮半島」(p.32), 「5世紀ごろの東アジア」(p.33)
2009	㉡自由社	「4世紀末の朝鮮半島」(p.32), 「5世紀ごろの東アジア」(p.33)
2011	㉣自由社	「5世紀の東アジア」(p.46)
	㉤育鵬社	「4世紀末の朝鮮半島」(p.30), 「5世紀ごろの東アジア」(p.31)





〈그림 3〉 4세기말의 조선반도와 5세기경의 동아시아

①를 제외하고 ②-①, ③-①, ④-①, ⑤-①의「4세기말의 조선반도」라는 지도에서 임나의 영역을 낙동강以西方面에서 북으로는 경상북도 문경까지 올라가고 그 밑으로 무주, 정읍으로 이어지는 이남지역인 충청북도의 일부와 전라남도 전역과 전라북도 대부분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5세기경의 동아시아」라는 지도에서는 ②-②, ③-②, ④-②, ⑤, ⑥-② 모두 북방의 일부가 축소되었을 뿐 4세기말의 영역과 일치하게 나타내고 있다.

임나의 영역은 이 분야에 대한 일본학계의 통설적 견해로 수용되고 있는 末松保和의 학설에 근거한다. 『日本書紀』繼體紀 6年(512)條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 임나국의 상다리(上哆唎), 하다리(下哆唎), 사타(娑陀), 모루(牟婁) 등 4현의 할양을 청하자, 백제의 요구대로 들어주었다고 한다. 末松에 따르면 임나4현의 위치비정을 전라남북도의 일원에 포함시키고 있다.²³⁾ 백제에 의 임나4현의 할양은 곧 야마토정권의 임나지배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4현은 임나의 일부가 되는 셈이다.

任那は、新羅からは攻略され、百濟からは領土の一部の割讓を求められた(②-p.40)。

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전라도 일원은 남원, 하동으로 이어지는 섬진강 중하류지역으로 그以西의 영산강 방면까지 확대하기는 어렵다. 이 지역은 가야문화권과는 다른 舊馬韓 지역의 독자적 문화권으로 5세기 후반 대에 와서야 백제의 중앙정권의 세력이 미칠 정도로 정치적, 문화적 독립성을 유지한 지역이다.²⁴⁾ 한편 임나는 영토적으로 통합된 國이 아니라 지역적

23) 末松保和(1956)『任那興亡史』吉川弘文館, pp.115-123

24) 『梁書』百濟傳에 보이는 5세기후반 백제의 지방통치체제의 정비의 일환으로 시행된 22담로제의 실시, 『三國史記』百濟本紀 東城王 20年(498)條에 보이는 무진주(光州)를 정벌하고 탐라국의 조공을 받았다는 기사 등은 5세기 후반 단계에서 백제의 영역이 전라남도 방면에까지 진출했다는 증거이다.

기반을 갖는 독립된 수많은 정치체로 분립되었다. 일정시기 지역적 연맹체를 구성한 적은 있지만 통일된 정권을 수립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임나라는 이름으로 가야제국이 마치 통합된 一國과 같이 표시한 것은 잘못이다. 임나 영역을 마치 一國과 같이 표기하고 서술한 것은 고대 일본의 임나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 세력권이 그 만큼 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²⁵⁾

2.5 任那日本府說

고대한일관계사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가 이른바 任那日本府說²⁶⁾이다. 일본학계의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야마토정권의 임나지배설인 것이다. 『日本書紀』의 神功皇后 전설과 광개토왕비문의 辛卯年 記事 그리고 『宋書』倭國傳의 倭王 武의 上表文, 『日本書紀』繼體紀 欽明紀의 임나일본부 관련 기사가 사료적 근거의 핵을 이루고 있다. 신공황후의 가야7국 평정이라는 神功紀 369年條의 기사를 시작으로 가야제국의 최후의 왕국 대가야가 멸망하는 562년까지 200여년의 야마토정권에 의한 지배의 역사가 바로 가야의 역사로 이해, 평가하는 것이다.

『日本書紀』에 대한 새로운 분석 방법과 해석, 가야문화권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에 의해 이미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 간에는 근거 없는 학설로 공통의 이해에 접근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사실화하려는 노력이 끊이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바로 扶桑社 교과서의 집필진의 생각이 그것이다. 이들의 연구란 이 분야의 전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기술한 것이 아니라 일부 편협된 시각의 연구와 사료의 자의적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²⁷⁾

25) 연민수(2005a)「앞의 논문」, pp.176-178

26) 『日本書紀』欽明紀 23年(562)條에서 “신라가 任那官家を 쳐서 멸하였다”라고 하고 이 기사에 대한 주석에서는 “총괄해서 말하기를 任那라고 하며, 따로 말하면 加羅國 安羅國 斯岐國 多羅國 卒麻國 古婁國 子他國 散半下國 乞瀛國 稔禮國으로 모두 10개 나라”라고 하듯이 임나는 가야 제국 전체를 총칭하기도 하고 개별적인 國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들 제국은 任那官家の 관할 하에 있었고, 任那官家は 신라에 의해 멸망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雄略紀 7年(463)條에서 “任那國司라는 지방관을 임명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뒤이어 “任那官家 日本府行軍元帥” 등이 보인다. “官家”라고 하는 말은 원래 ‘미야케(屯倉)’라고 하여 일본 고대의 야마토정권의 지배 기구의 하나로 왕실 직할령적 성격을 지닌다. 둔창이 국내적 용어라면 관가는 해외적 의미가 강하다. 즉 ‘任那官家’란 해외에 설치된 일본 고대 왕실의 직할령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낯익은 용어인 이른바 ‘任那日本府’란 바로 ‘任那官家’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것이 『日本書紀』에 그려진 任那日本府像이다(연민수(2003)「고대 한일관계사의 쟁점과 사료·임나문제와 백강전투를 중심으로」『일본역사연구』17, pp.61-62 참조).

27) 연민수(2005a)「앞의 논문」, p.178

〈표 6-1〉 任那日本府説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 내용

검정연도	출판사	서술 내용
2001	㉠扶桑社	〈朝鮮半島の動きと日本〉 高句麗は、半島南部の新羅や百濟を壓迫していた。…4世紀後半、大和朝廷は海を渡って朝鮮に出兵した。①大和朝廷は、半島南部の任那(加羅)という地に據點を築いたと考えられる(p.37)。
2005	㉢扶桑社	〈百濟を助け高句麗と戦う〉 高句麗は…4世紀後半には半島南部の百濟をも攻撃した。…貴重な鐵の資源を求めて半島南部と深い交流をもっていたので…このとき、①大和朝廷は、半島南部の任那(加羅)という地に據點を築いたと考えられる(p.32)。〈新羅の臺頭と任那の滅亡〉 ②562年、ついに任那は新羅にほろぼされ、大和朝廷は朝鮮半島における足がかりを失った(p.33)。
2009	㉣自由社	〈百濟を助け高句麗と戦う〉 高句麗は…4世紀後半には半島南部の百濟をも攻撃した。…貴重な鐵の資源の供給地である半島南部と深い交流をもっていたので、大和朝廷は海を渡って朝鮮に出兵した。このとき、①大和朝廷は、半島南部の任那(加羅)という地に據點を築いたと考えられる(p.32)。〈新羅の臺頭と任那の滅亡〉 ②562年、ついに任那は新羅にほろぼされ、大和朝廷は朝鮮における足がかりを失った(p.33)。
2011	㉤自由社	〈百濟を助け高句麗と戦う〉 朝鮮半島北部の高句麗が強大になり…4世紀後半には半島南部の百濟をも攻撃した。百濟は大和朝廷に助けを求めた。大和朝廷は、もともと、貴重な鐵の資源の供給地である半島南部と深い交流をもっていたので、海をわたって朝鮮に出兵した。このころから、①朝鮮南部の任那(加羅)に影響をもったと考えられる(p.46)。〈新羅の臺頭と任那の滅亡〉 ②新羅は、大和朝廷との関係が深い任那をもおびやかすようになった。562年、ついに任那は新羅にほろぼされ、大和朝廷における影響力を失った(p.47)。
	㉥育鵬社	〈中國と朝鮮〉 朝鮮半島北部にあった高句麗は…南部の新羅や百濟へも軍を進めました。鐵の資源を求めて半島南部と交流のあったわが国は、百濟からの求目もあり、朝鮮に出兵しました。5世紀初めに建てられた①高句麗の廣開土王(好太王)碑には、わが國と高句麗のあいだに戦いがあったことを示す碑文が刻まれています。こうした情勢のながで、わが國は任那に対して影響力をもつようになりました。②新羅は任那にも進出し、6世紀半ばにはその地域を支配したため、朝鮮半島でのわが國の影響力は後退しました(pp.30-31)。

임나와 임나일본부에 관한 서술을 보면, 먼저 “야마토조정은 반도남부의 임나(가야)라고 하는 지역에 거점을 구축하였다고 생각 된다”(㉠-①, ㉢-①, ㉣-①)라고 기술하고 있던 부분이, ㉤-①은 “조선남부의 임나(가야)에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 된다”와 ㉥-① “광개토왕비에 우리나라와 고구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것을 나타내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임나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서술하면서, ‘거점’이라는

표현이 ㉔부터 ‘영향력’으로 바뀌었다.

또한 2005년도(㉔)부터 「신라의 대두와 임나의 멸망」이라는 항목에서 “562년 드디어 임나는 신라에 멸망당하여 아마토조정은 조선반도에서 발판을 잃었다”(㉔-㉔, ㉔-㉔)라고 기술한 부분이 ㉔-㉔는 “신라는 아마토조정과의 관계가 깊은 임나도 위협하기 시작했다. 562년 마침내 임나는 신라에 멸망, 아마토조정은 영향력을 잃었다”, ㉔-㉔ “신라는 임나에도 진출하여 6세기 중엽에는 그 지역을 지배하였기 때문에 조선반도에서의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후퇴하였다”로 서술하면서 ‘발판’을 ‘영향력’으로 표현만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술과 표현은 마치 아마토조정이 한반도 남부 즉 가야지역에 정치적, 군사적 거점과 지배체제를 구축했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표현만 달리하였을 뿐 아마토정권의 한반도남부에 대한 지배설이 바뀐 것은 아니다. 가야지방에 대한 아마토정권의 영향력을 논하면서 임나일본부설로 대표되는 일본학계의 구학설로서 『日本書紀』의 編纂史觀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리고 ‘가야’의 명칭을 ‘任那(加羅)’(㉔, ㉔, ㉔, ㉔), ‘任那(加羅, 伽耶)’(㉔)로 표기하고 있다. ‘任那’란 가야 제국을 지칭할 때 일본 측 문헌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국내 사료에서는 〈표 7〉 28)에서 알 수 있듯이 광개토왕비문의 ‘任那加羅’, 『三國史記』 强首傳의 ‘任那加良人’, 진경대사탑 비문의 ‘任那王族’ 등 세 가지 예에 불과하다. 여러 사료에서 가야를 표기하는 명칭이 달랐기 때문에 아직 국내 학자들도 가야의 국명에 관해 통일을 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어떤 용어로 가야 국명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현재 한국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야는 加耶·伽耶·伽倻가 있으며, 加耶(고려중기)→伽耶(고려후기)→伽倻(조선시대)와

28) <표 7>가야·가라 借字의 출전 및 사용 빈도

借字(頻度)	初見出典	最頻出典	출전 및 사용빈도
加羅(47)	廣開土王陵碑	日本書紀	광개토왕릉비(1), 송서 왜국전(3), 남사 왜국전(3), 남제서 가라국전(2), 왜국전(1), 통전 신라전(1), 일본서기(29), 신찬성씨록(1), 삼국사기 신라본기(2), 약지(2)·열전(2)
加耶(31)	三國史記	三國史記	삼국사기 신라본기(19)·약지(2)·지리지(3)·열전(4), 고려사 지리지(2), 동국여지승람(1)
伽耶(28)	高麗史	東國輿地勝覽	고려사 지리지(3), 동국여지승람(25)
駕落(15)	三國史記	三國遺事	삼국사기 김유신전(1), 삼국유사 왕력(1)·오가야(1)·제4탈해왕(1)·가락국기(5), 동국여지승람(6)
伽耶(14)	三國史記	三國遺事	삼국사기 지리지(1), 삼국유사 왕력(1)·오가야(8)·가락국기(4)
任那(237)	廣開土王陵碑	日本書紀	광개토왕릉비(1), 진경대사탑비(1), 삼국사기 강수전(1), 송서 왜국전(4), 남제서 왜국전(1), 양서 왜전(1), 남사 왜국전(5), 통전 신라전(1), 신찬성씨록(7), 일본서기(215-송신기(2), 수인기(2), 웅신기(2), 웅락기(6), 현종기(4), 계제기(12), 선화기(3), 흠명기(133), 단달기(9), 승준기(4), 추고기(29), 서명기(1), 황국기(1), 효덕기(7))

※ 출처 : 김태식(1993)『가야연맹사연구』, 일조각, p.7 ; 국사편찬위원회(1993)『한국사』, p.301 ; 박현숙(2010)「한·일 역사교과서에 보이는 가야사 인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7.

같이 시대가 내려오면서 변화되고 있다.²⁹⁾ 이런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오래된 용례이며 간단한 표기인 ‘伽耶’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³⁰⁾ 가야가 고대 한국에 존재하였던 연맹 국가였음을 반영해 ‘임나’라는 용어보다는 현재 한국 역사교과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야’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문제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표 6-2〉 任那日本府說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 내용

검정연도	출판사	서술 내용
2001	㉠扶桑社	〈朝貢〉 ②高句麗は南下政策をとった。海を渡った大和朝廷の軍勢は、百濟や新羅を助けて、高句麗とはげしく戦った。4…③高句麗は、百濟の首都漢城を攻め落とし、半島南部を席捲した。しかし、百濟と任那を地盤とした日本軍の抵抗にあつて、征服は果たせなかった。…百濟と任那を地盤とした日本軍の抵抗にあつて、征服は果たせなかった。…大和朝廷と百濟は、中國の南朝に朝貢した。…④大和朝廷と百濟があえて宋の朝貢國になったのは、宋の力を借りて高句麗を牽制するためであった(p.38)。〈大和朝廷の自信〉 ①高句麗が突然、大和朝廷に接近し、引き続いて、新羅と百濟が日本に朝貢した。三國がたがいに牽制しあつた結果だった(p.40)。
2005	㉢扶桑社	〈百濟を助け高句麗と戦う〉 ②大和朝廷の軍勢は、百濟を助けて、高句麗とはげしく戦った。…③高句麗は、百濟の首都漢城を攻め落としたが、百濟と大和朝廷の軍勢の抵抗にあつて、半島南部の征服は果たせなかった。〈倭の五王による朝貢〉 南朝の歴史書には、倭の5人の王(倭の五王が)、10回近く使者を送ったことや、大和朝廷の支配が広がっていくようすが書かれていた。④大和朝廷があえて南朝の朝貢國になったのは、高句麗に對抗し、朝鮮南部とのつながりを維持するためだった(pp.32~33)。【廣開土王碑文の一部】 ⑤倭、辛卯の年(391年)よりこのかた、海を渡りて百殘(百濟)を破り、新羅を□□し、以て臣民と為す(上側)(pp.32~33)。
2009	㉡自由社	〈百濟を助け高句麗と戦う〉 ②大和朝廷の軍勢は、百濟を助けて、高句麗とはげしく戦った。…③高句麗は、百濟の首都漢城を攻め落としたが、百濟と大和朝廷の軍勢の抵抗にあつて、半島南部の征服は果たせなかった。〈倭の五王による朝貢〉 南朝の歴史書には、倭の5人の王(倭の五王が)、10回近く使者を送ったことや、大和朝廷の支配が広がっていくようすが書かれていた。④大和朝廷があえて南朝の朝貢國になったのは、高句麗に對抗し、朝鮮南部とのつながりを維持するためだった(pp.32~33)。【廣開土王碑文の内容】 ⑤倭、辛卯の年(391年)よりこのかた、海を渡りて百殘(百濟)を破り、新羅を□□し、以て臣民と為す(上側)(pp.32~33)。

29) 가장 오래된 고려 중기의 『三國史記』에서 주로 쓰인 용례가 ‘伽耶’이고, 고려 후기 『三國遺事』에서 주로 쓰인 용례는 ‘伽耶’, 『新增東國輿地勝覽』과 같이 조선 전기 인문지리서에는 ‘伽耶’의 용례가 사용되었다.

30) 이영식(2004) 「가야국명의 재검토」 『가야문화』 17, pp.54-55

2011	㉔自由社	〈百濟を助け高句麗と戦う〉㉔大和朝廷の軍勢は、百濟を助けて、高句麗とはげしく戦った。…㉔高句麗は、百濟の首都漢城を攻め落としたが、百濟と大和朝廷の軍勢の抵抗にあつて、半島南部の征服は果たせなかった。〈倭の五王による朝貢〉南朝の歴史書には、倭の5人の王(倭の五王が)、次々に使者を送ったことや、大和朝廷の支配が広がっていくようすが書かれていた。㉔大和朝廷が南朝に朝貢したのは、高句麗に對抗し、朝鮮南部への軍事的影響力を維持するためだった(pp.46-47)。
	㉔育鵬社	〈中國と朝鮮〉㉔朝鮮半島北部にあった高句麗は、中國側に領土を広げるとともに、南部の新羅や百濟へも軍を進めました。鐵の資源を求めて半島南部と交流のあったわが国は、百濟からの求めもあり、朝鮮に出兵しました。中國の南朝の歴史書には、倭の5人の王(倭の五王が)、何度も皇帝のもとへ使者を送ってきたと記されています。㉔大和朝廷が、南朝に朝貢していたのは、高句麗に對抗し、朝鮮での自らの影響力を確保するためでした(pp.30-31)。【廣開土王碑文の一部】㉔倭、辛卯の年(391年)よりこのかた、海を渡りて百殘(百濟)を破り、新羅を□□し、以て臣民と為す(上側)(p.31)。

이상의 서술에서는 먼저 ㉔-①에서 “고구려가 돌연 야마토조정에 접근하였으며, 이어 신라와 백제가 일본에 조공을 하였다”라는 서술은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야마토조정의 국제적 지위가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백제와 신라가 이어 조공을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日本書紀』의 표현일 뿐이고, 사실도 아니며 한국과 중국의 史書에는 그러한 표현이 없다. 6세기 이후 삼국은 일본에 대하여 정치문화적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공’ 등으로 잘못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한일 학계의 통설이다.³¹⁾ 이 부분은 이후의 교과서에서는 서술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야마토조정이 백제를 도와 고구려와 싸웠고”(㉔-②~㉔-②), “5세기 후반에는 고구려가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켰으면서도 한반도 남부까지 정복하지 못한 것은 야마토조정의 軍勢때문이었고”(㉔-③~㉔-③), “야마토조정과 백제가 굳이 송의 조공국이 된 것은 송의 힘을 빌려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였다”(㉔-④)라고 기술한 부분은 ㉔-④, ㉔-④에서 “조선남부와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㉔-④는 “조선남부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㉔-④에서는 “조선에서의 스스로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고 서술하면서 ‘견제’나 ‘연결을 유지’가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와 ‘스스로의 영향력을 유지’라고 표현만 일부 수정되었을 뿐,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이와 같이 서술된 부분은 상단 지도 옆에 이를 증명하는 자료로 「광개토왕 비문의 신묘년 기사」³²⁾를 소개하고 있는데 “왜가 신묘

31) 이원순·정재정(2002)『일본 역사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동방미디어, pp.339-340

32) 광개토대왕비문의 신묘년 기사란 “百濟新羅足屬民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渡海破百殘□□羅以爲臣

년(391년)이래로 바다를 건너 백잔(백제)을 격파하고, 신라를 □□해, 신민으로 삼았다”(㉔-㉕, ㉔-㉕, ㉔-㉕)는 사진과 비문에 대한 해석을 함께 제시하여 광개토대왕비를 임나일본 부설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료로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㉔교과서는 이 내용을 본문이 아닌 서장 【역사를 이해하는 법】(p.7)의 표지에 「4세기 말의 한반도지도」와 광개토대왕비 사진과 탁본을 실고, ‘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이라는 비문 일부를 박스문형으로 떼어내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사진 아래 문답으로 ‘이 비문으로부터 왜(일본)가 391년에 바다를 건너 백제를 무찔렀던 일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광개토대왕 비문을 통해 고대 일본의 한반도지배설을 각인시키고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야마토조정」(p.46)의 항목에서는 광개토대왕 사진에 ‘이 비문에 391년, 조선반도에 출병한 야마토조정이 고구려와 싸웠던 일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설명하면서, 서장의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의 비문에, 왜(일본)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 백제를 격파하였다’(p.9)라고 참조로 부연 설명을 덧붙이면서 재차 야마토조정의 한반도 지배가 실제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구려가 한반도남부의 정복을 이룰 수 없었던 이유를 백제와 임나를 거점으로 한 야마토조정의 軍勢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으로 본 것은 당시의 정세를 잘못 판단한 오류이다. 고구려가 남정하는 5세기 전후한 시기의 고구려에 대적했던 최대의 세력은 백제였고 왜는 백제의 요청에 의해 출병한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였다. 광개토대왕비문에 보이듯이 정자년 전투에서는 낙동강하류까지 추격당하여 敗退하였고, 백제와 공동 전선을 구축한 갑진년의 대방계 전투에서도 괴멸당하는 사태를 맞이한다. 또한 일본이라는 국호가 7세기 말에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세기 후반에 ‘任那日本府’가 등장하는 것은 용어상으로 맞는 않는 표현이며, ㉔에서 ‘일본군’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마치 근대 국민국가로서의 일본의 군대를 연상시킬 우려가 있다.³³⁾ 임나일본부란 표현은 없어도 기술의 수법으로 보아 명백히 임나일본 부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民”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이를 “백제와 신라는 원래부터 속민으로서 유래, 조공하였다. 그러나 왜가 신묘년(391)에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 신라를 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최근 학계에서 공인되고 있는 학설은 고구려를 주어로 하여 ‘신묘년 이래로 왜가 건너오니 그때마다 격파하였다’는 해석이다. 이것은 일찍이 정정보가 주장하였고 이후 여러 학자들이 수정·보완된 해석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지는 ‘百殘 羅’의 부분은 글자가 지워져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百殘(백제를 가르킴), (新)羅를 신민으로 삼은 것은 역시 고구려 광개토대왕이지 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한편, 재일교포학자인 이진희는 19세기 말엽 일본육군참모본부가 비문을 변조하여 ‘남한경영설’이라는 허구를 사실화하려고 하였음을 상세하게 고발함으로써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였다(송영심·오정현(2005)『앞의 책』, pp.160-161).

33) 이원순·정재정(2002)『앞의 책』, p.338

〈표 6-3〉 任那日本府說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 내용

검정연도	출판사	서술 내용
2005	㉔扶桑社	〈武が中國の皇帝に送った手紙〉昔からわが祖先はみずからよろい・かぶとを身につけ、山野を越え、川を渡って落ちてくひまありませんでした。東は毛人を五十五か國、西は衆夷を六十六か國、海を渡って朝鮮半島で九十五か國を平定しました(『宋書』「倭國傳」より)(上側)(p.33)。
2009	㉔自由社	〈武が中國の皇帝に送った手紙〉昔からわが祖先はみずからよろい・かぶとを身につけ、山野を越え、川を渡って落ちてくひまありませんでした。東は毛人を五十五か國、西は衆夷を六十六か國、海を渡って朝鮮半島で九十五か國を平定しました(『宋書』「倭國傳」より)(上側)(p.33)。
2011	㉔自由社	〈倭王武(雄略天皇)の上表文〉昔からわが祖先はみずからよろい・かぶとを身につけ、山川をを踏み越え、各地を進み、休むひまありませんでした。東は毛人①を五十五か國、西は衆夷②を六十六か國、海をわたって北の九十五か國③を平定しました(『宋書』「倭國傳」より)(上側)(p.47)。
	㉔育鵬社	〈武が中國の皇帝に送った手紙〉昔からわが祖先はみずからよろい・かぶとを身につけ、山川をを踏み越え、各地を進み、休むひまありませんでした。東は毛人を五十五か國、西は衆夷の國六十六か國、さらに海を北に渡って九十五か國を平定しました(『宋書』「倭國傳」より)(上側)(p.33)。

『宋書』倭國傳의 倭王 武의 上表文에 대해선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스스로 갑옷과 투구를 입고, 산야를 넘고 강을 건너 안정을 취할 여유도 없었다. 동으로는 毛人을 55개국, 서로는 衆夷 66개국, 바다를 건너 조선반도에서 95개국을 평정했다(『宋書』倭國傳으로부터)”(㉔, ㉔)라고 서술하면서 출전까지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조선반도’라는 표현이 ㉔, ㉔에서는 삭제되었다. 위에서 말한 기사는 478년 왜왕 무가 송황제에 올린 上表文의 일부로, 자신의 선조들의 국토 확장을 자랑하며 宋朝의 힘을 빌려 고구려에 대한 응징을 바라는 외교문서이다. 그러나 이 上表文에 ‘조선반도’라는 문구는 없다. 사료에 없는 내용을 집필자의 추측에 의해 마치 사료에 근거해서 한반도가 왜왕권에 의해 지배를 받은 듯이 서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海北 95國’을 한반도에 비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으로서의 추측이지 사료적 근거로 확정지을 수는 없다. 사료에 없는 ‘조선반도’를 인용 사료 속에 삽입시키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사실로서의 역사적 이해를 유도하려는 수법으로밖에 볼 수 없다.

현재 일본학계에서는 아마토정권에 의한 지배기관설을 의미하는 任那日本府說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학계에서 널리 이해되고 있는 가야지역에 대한 아마토정권의 어떠한 영향력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군사적 거점 혹은 정치적 지배가 아닌 문화적 교류와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른 외교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2.6 도래인의 문화 전수

일본 고대국가 형성기에 해당하는 4-7세기에 한반도로부터 건너간 이주민, 이른바 도래인이 담당한 역할과 일본 고대사회에 끼친 영향은 새삼 논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대하였다. 일본 고대국가 형성시는 곧 대외관계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특히 4-6세기의 대외관계사는 5세기대의 60여 년 간의 왜왕들이 宋朝에 사절을 파견한 것을 제외하고는 백제를 비롯한 한반도제국과의 교류뿐이었다. 그만큼 일본 고대국가 형성사를 논할 때 한반도의 문화적 영향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표 8〉 도래인의 문화 전수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 내용

검정연도	출판사	서술 내용
2001	㉠扶桑社	〈技術の傳來と氏姓制度〉おもに5世紀以降、㉡大陸や半島から技術をもった人々が一族や集團で移り住んだ。㉢彼らは、土木・金屬加工・高級な絹織物・高温で焼いたかたい土器(須恵器)づくりなどを、日本列島の人人に伝えた。鐵の農具や武器も、大量につくられるようになった。同じごろ、㉣漢字使用もようやく定着し、儒教も傳來した。漢字漢文を書くことに未熟な列島人に、外からきた人が指導し、外交文書や朝廷の記録の作成を手傳った。技術や文化を伝えたこれらの人々は、㉤歸化人(渡來人)とよばれる。大和朝廷は、彼らをおもに近畿地方に住ませ、政權につかえさせた(p.39)。
2005	㉢扶桑社	〈歸化人と佛教の傳來〉5世紀から6世紀にかけて…㉣中國や朝鮮半島から一族や集團で日本に移り住んだ㉤歸化人(渡來人)は、㉥土器や金屬器の加工、土木建築などの技術を伝え、㉦漢字による朝廷の文書の作成にも力を發揮した。漢字使用の定着とともに、儒教の書物も伝えられた(p.33)。
2009	㉣自由社	〈歸化人と佛教の傳來〉5世紀から6世紀にかけて…㉣中國や朝鮮半島から一族や集團で日本に移り住んだ㉤歸化人(渡來人)は、㉥土器や金屬器の加工、土木建築などの技術を伝え、㉦漢字による朝廷の文書の作成にも力を發揮した。漢字使用の定着とともに、儒教の書物も伝えられた(p.33)。
2011	㉤自由社	〈歸化人の役割〉㉧東アジアの戦亂をのがれて、多くの難民が一族や集團で日本に移り住んだ。これを㉨歸化人(または渡來人)という。㉩歸化人は、土器や金屬器の加工、土木・建築などの技術や㉪儒教を伝え、漢字による朝廷の文書の作成にも力を發揮した。佛教が傳來すると、百濟から佛像、佛具の工藝家や寺院建築の工人が渡來し、佛教藝術の發展の基礎を築いた(p.49)。

2011	㉔育鵬社	〈歸化人の傳えたもの〉 ❶大陸との關係が深まると、戰亂の続く❷朝鮮半島や中國から多くの人々が一族でわが國に移り住むようになりまし た。この人々を❸歸化人(渡來人)といいます。朝廷や各地の豪族は、す ぐれた知識や技術をもった歸化人を手厚くむかえ入れました。その結 果、わが國には大陸の文化が數多くもたらされました。❹鐵製の農具や 武器、須恵器とよばれるかたい土器の焼き方や機織りの技術、感慨用の ため池をつくる工法、❺さらには漢字や儒教なども傳えられました。… 歸化人は、その後も役人として朝廷に任えたり、漢字などの新しい知識 や技術を教える仕事を通じて、わが國の發展に大きな役割を果たしまし た(p.31)。
------	------	---

㉔의 「기술의 전래와 氏姓制度」라는 항목에서 “주로 5세기 이래 대륙과 반도로부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일족이나 집단으로 이주하였다. 그들은 토목, 금속가공, 고급견직물, 고온에서 구운 견고한 토기(須恵器)제작법 등을 일본열도의 사람들에게 전했다. 철제 농구와 무기도 대량으로 만들게 되었다. 같은 시기 한자의 사용도 겨우 정착되고 유교도 전래되었다. 한자, 한문을 쓰는 데에 미숙한 일본인에게 외부에서 온 사람이 지도하고 외교문서와 조정의 기록의 작성을 도왔다. 기술과 문화를 전한 이들을 歸化人(渡來人)이라고 불렀다. 야마토조정은 그들을 주로 近畿地方에 거주시켜 정권에 봉사하게 하였다”로 기술되었던 부분은, 이후의 ㉕, ㉖, ㉗에서도 내용면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이 서술되어지고 있다.

먼저, 도래인이 나타나게 된 요인 즉, 일본에 왜 왔는가 하는 역사적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 2009년까지는 언급되지 않고 ㉕-❶에서 “동아시아의 전란을 피해 많은 난민이 일족과 집단으로 일본에 이주했다”라고 기술하지만, 이주의 주체자가 어느 나라인지는 설명되지 않고 있다. 이후 ㉕-❶은 “계속된 전란으로 한반도와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족으로 우리나라에 이주하게 되었다”로 조금은 개선된 서술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고구려의 영토 확대나 백제의 멸망, 신라의 침략 등 한반도 내에서의 일련의 사정이 도래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³⁴⁾ 이런 구체적인 경과의 기술 여부는 별개로 치더라도, 단지 도래해 왔다고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잘못된 인식을 품게 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歸化人」이라는 용어의 사용이다.³⁵⁾ 현재 일본학계에서는

34) 木村茂光・花村統由(2000)「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古代日韓關係史」『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해안, p.130

35) 재일사학사 金達壽・李進熙 그리고 上田正昭 등은 1969년에 간행이 시작된 계간잡지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朝鮮文化社)를 통해서 일본열도 내 한국문화의 흔적과 한반도로부터의 이주민과 그 자손들이 일본사회에서 담당한 역할에 대해 보고하였다. 김달수는 동 잡지 창간호의 좌담회에서 ‘大和政權이 확립되기 이전의 渡來人이라 하고, 시대가 飛鳥에서 奈良로 이행한 이후에 歸化人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한 후 한반도로부터의 이주자를 歸化人으로부터 渡來人으로 용어를 바뀌게 하는 등 이른바 歸化人史觀의 극복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귀화인이란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있으며, 대신 도래인이란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³⁶⁾ 그래서인지 이 용어를 ㉠-㉡-㉢까지 모두 귀화인이라는 말을 도래인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귀화의 개념은 『古事記』와 『日本書紀』등에 쓰여져 있는 도래전승에 의거하고 있다. 『記·紀』를 기록된 그대로 이해한데서 발생한 귀화의 개념인 것이다. 귀환 혹은 귀화인이라는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어감은 일본에 종속해야 될, 또는 일본보다 하위에 있다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다.³⁷⁾ 고대의 천황중심의 율령국가가 中華思想을 모방하여 사용한 귀화의 개념은 그 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對韓史像의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말이다. 이른바 ‘歸化人史觀’이라고 불리우는 이 용어는 90년대 이후 일본의 대부분의 역사교과서에서 소멸되어 버린 것으로 21세기 초부터 다시 부활시킨 것은 『日本書紀』史觀에 빠진 집필자의 일본적 우월의식에서라고 생각된다.

이 시기에 일본고대문화의 발전에 있어서 주축을 이루었던 것이 중국보다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었다.³⁸⁾ 일본열도로 건너간 도래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기술을 현지에서 실무에 적용시켜 나갔다. 고대국가로의 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자의 지식이다. 문자야말로 미개에서 문명으로, 원시에서 고대로 이행하는 매체이자 지표였다. 당시 동아시아 세계의 유일한 문자였던 한자는 중국의 선진 문화,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필수적인 요소였다. 조정과 관청의 행정문서를 작성하고 재정의 출납, 정세, 외교문서의 작성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사용되었다. 한반도제국은 일찍부터 중국의 한자를 받아들여 유교와 불교의 수용, 역사의 편찬, 호적제도의 정비, 율령의 제정 등 고대국가로의 이행에 불가결한 사상과 제도,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으며, 모두가 한자의 수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자의 수용과 관련해서 ㉠-㉢, ㉡-㉢는 “한자의 사용이 정착”, 이후의 ㉣-㉤, ㉥-㉦는 “한자로 조정의 문서를 작성”, ㉧-㉨에서는 “한자도 전래되었다”라고 표현을 바꾸면서 시기를 5세기(㉠, ㉡, ㉢)로 설명하고 있다. 일본 고대의 문자사용의 시기를 알려주는 사료로서 『隋書』倭國傳에 「無文字, 唯刻木結繩, 敬佛法於百濟, 求得佛經, 始有文字」라 하여 백제로부터 불교를 수용하고 불경을

36) 上田正昭(1989)「渡來と歸化と」『古代の道教と朝鮮文化』人文書院, pp.108-124

37) ‘귀화’라는 말의 고전적 의미는 中華思想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중국천자의 王化가 미치지 않은 주변의 夷狄들이 왕화를 흡수하여 스스로 귀부하는 것을 말한다.

38) 한반도 사람들의 일본열도로의 이주시기에 대해서는 ①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일본 弥生時代 한반도로부터 도작문화를 전래) ② 5세기 전후(4세기말 광개토왕의 남정의 결과 한반도남부 주민의 일본열도로 이주) ③ 5세기 후반(고구려 장수왕에 의한 백제 침공으로 주민 이동) ④ 7세기 후반(백제의 멸망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백제부흥의 실패로 백제의 수많은 백성들이 일본열도로 이주) 등 4단계 설이 널리 수용되고 있다(연민수(2005b)「古代日本の 한반도계 氏族과 역할-西文氏와 東漢氏를 중심으로」『임나 문제와 한일관계』, pp.220-223 ; 김은숙(2010)「도래인의 문화전수」『한일역사쟁점논집』; 上田正昭(1965)『歸化人』, 中央公論社; 關晃(1966), 『歸化人』, 至文堂; 關晃(1983)『歸化人』『國史大辭典』4, 吉川弘文館; 關晃(1993)『歸化人』『日本史大辭典』2, 平凡社).

얻은 후에 비로서 문자가 생겼다고 할 정도로 문자의 사용은 늦었다. 적어도 6세기 전반까지는 지배층을 구성하는 일본의 지식인만이 한자를 해독하고 쓸 수 있었고, 문서 행정의 시기는 이보다 훨씬 후의 일이라고 생각된다.³⁹⁾

토목, 금속기가공, 고급건축물, 토목건축 등 생산과 관련된 기술문화의 영향에 대해선 ①-④~⑤-④까지 모두 기술되어 있지만, 고대국가로의 성장과 발전에 불가결한 요소인 철기 문화에 대해선 ①-④와 ⑤-④에서만 다루고 있다. 철기문화는 철제농구, 무기, 경지의 개간, 수리사업 등 다방면에 필요하다. 생산력의 확대와 왕권의 유지라는 2대의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고대의 지배자들은 철을 획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과 외교를 전개해 나갔다. 일본의 독자적인 철 생산 기술은 늦어 6세기가 되지 않으면 자체 생산이 불가능하였으며,⁴⁰⁾ 그 이전에는 철정과 같은 수입 원료에 의존하고 있었다.⁴¹⁾ 한국의 철기시대부터 교류를 통해 철을 수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영향을 외면하는 서술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儒敎思想의 전래에 대해선 ①-③~⑤-③까지 모두 기술되어 있다. 특히 儒敎思想은 聖德太子의 헌법17조의 조문에도 많이 반영되어 일본문화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상과 같이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4~6세기대의 일본열도에 문화를 전파하고 뿌리내리게 한 것은 한반도계 도래인과 그 후손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륙과 반도(①-⑤)’, ‘중국과 조선반도(②-⑤, ③-⑤)’, ‘조선반도와 중국(⑤-⑤)’이라는 식으로 ①-⑤, ②-⑤, ③-⑤에서는 표기 순에서도 한반도를 뒷전으로 배치하는 서술태도로 한반도로부터의 문화적 영향을 과소평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2.7 불교의 전래

〈표 9〉 불교의 전래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 내용

검정연도	출판사	서술 내용
2001	①扶桑社	〈大和朝廷の自信〉⑦朝鮮半島を通して、中國の文化は日本に流入した。…しかし、百濟と大和朝廷の連携だけは続いた。新羅・高句麗が連合して、百濟をおびやかしていた時代だったからである。①538年に、百濟の聖明王は、佛像と經典を日本に③獻上した(p.40)。

39) 연민수(2005a)「앞의 논문」, pp.185-187

40) 大澤正志(1984)「冶金學的見地からみた古代製鐵」『古代を考える』36 참조

41) 연민수(2005b)「앞의 논문」, p.240

2005	㉔扶桑社	〈<u>歸化人と佛教の傳來</u>〉5世紀から6世紀にかけて、④大和朝廷が朝鮮半島の政治に積極的に關與した結果、⑦朝鮮半島を通じて、中國の進んだ文化が日本にもたらされた。①また6世紀には、②百濟の王が日本の支援を求めたさい、佛像と經典を大和朝廷に③獻上し、佛教が日本に傳來した(p.33)。〈<u>聖德太子と佛教と古來の神々</u>〉⑤聖德太子は、607年に法隆寺を建てるなど、蘇我氏とともに佛教をあつく信仰した。…このような聖德太子の態度は、外國のすぐれた文化を取り入れつつ、自國の文化をすてない日本の傳統につながっていったと考えられる(p.37)。
2009	㉔自由社	〈<u>歸化人と佛教の傳來</u>〉5世紀から6世紀にかけて、④大和朝廷が朝鮮半島の政治に積極的に關與した結果、⑦朝鮮半島を通じて、中國の進んだ文化が日本にもたらされた。①また6世紀には、②百濟の王が日本の支援を求めたさい、佛像と經典を大和朝廷に③獻上し、佛教が日本に傳來した(p.33)。〈<u>聖德太子と佛教と古來の神々</u>〉⑤聖德太子は、607年に法隆寺を建てるなど、蘇我氏とともに佛教をあつく信仰した。…このような聖德太子の態度は、外國のすぐれた文化を取り入れつつ、自國の文化をすてない日本の傳統につながっていったと考えられる(p.37)。
2011	㉔自由社	〈<u>佛教傳來の背景</u>〉…⑤5-6世紀の南北朝時代に佛教は大きく發展し、朝鮮半島の百濟には、南朝の宋から伝わった。6世紀の後半、當時の百濟は、高句麗、新羅に攻めこまれて存亡の危機にあった。百濟は、日本に再三にわたって軍事援助を求めた。百濟の聖明王は、日本との同盟を強固なものにする決め手として、①552年、金銅(銅・青銅の金めっき)の佛像と經典を大和朝廷に③獻上(佛教傳來)した(p.48)。〈<u>聖德太子と佛教と古來の神々</u>〉⑤聖德太子は、607年に法隆寺を建てるなど、佛教をあつく信仰した。…こうした姿勢は、外國の優れた文化を取り入れつつ、自國の文化も大切にするという日本の傳統につながったと考えられる(p.53)。
	㉔育鵬社	〈<u>歸化人の傳えたもの</u>〉①また、6世紀後半には②わが國に支援を求め百濟の王から佛像や經典が③獻上され、佛教が傳來しました。〈<u>アジアでおこった佛教</u>〉わが國には、⑦朝鮮半島を経て6世紀後半に伝わり、その後の歴史に大きな影響をあたえました(pp.31~32)。〈<u>飛鳥文化</u>〉⑤聖德太子や蘇我氏は、佛教を深く信仰し、…中國や朝鮮から伝わった、新しい文化を積極的に取り入れながら、日本人の美意識に合った建築や美術品がつくられました(p.40)。

백제에서 불교가 전해졌다고는 ㉔-**①**~㉔-**①**까지 모두 서술하고 있다. 백제가 불교를 야마토조정에게 전한 이유에 대해선 ㉔-**②**, ㉔-**②**, ㉔-**②**는 “일본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㉔만이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결정적 수단”으로 불교를 전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과연 야마토조정 내에 불교 수용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백제가 왜국과 동맹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수단으로 불교를 전해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⁴²⁾ 백제가 야마토조

42) 김은숙(2011)「앞의 논문」, p.52

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진문물의 하나로 불교를 왜에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백제의 聖明王이 불상과 경전을 일본에 헌상했다”에서 ‘헌상’은 상하관계를 전제로 한 기술로 ㉠-③~㉡-③까지 여전히 고수되어 오고 있다. ㉡-④, ㉢-④에서 “야마토조정이 조선반도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결과 조선반도를 통해서 중국의 선진문화가 일본에 들어왔다”는 논리를 펴 한반도제국에 대한 정치적 상하의 개념을 적용시키고 있다. 특히 문화의 전파와 수용을 상대국 정치에 개입한 결과로 설명하는 것은 백제를 야마토조정의 정치적 간섭을 받은 조공국으로 간주하는 것이어서 사실과 다르다. 이후의 ㉣, ㉤에서 이 부분의 내용은 삭제되었다.

백제성왕대에 야마토조정에 전해진 불교는 당시 왜왕권내의 유력한 호적인 蘇我氏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 소가씨는 해외사정에 밝아 일찍부터 선진기술과 지식을 지닌 도래계 집단과 연계하여 왜왕권내에서 정치적 기반을 다져나갔다. 왜국 최초의 사찰인 飛鳥寺가 소가씨의 氏寺라는 사실도 불교수용에 이 씨족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던가를 말해 준다. 소가씨의 외교적인 노력에 의해 전해진 불교는 수용에 반대하던 物部氏 등의 보수 세력에 의해 저항을 받아서 왜왕이었던 欽名 역시 판단이 서지 않아 양자의 대결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소가씨가 무력으로 物部氏를 타도한 후에 불교의 公傳이 이루어지고 백제불교의 문화적 확산이 본격화된다. 야마토조정에 불교의 전래과정에서 나타나듯이 단순히 국가권력의 개입에 의해 강제성을 띤 성격으로 규정하는 것은 백제가 왜왕권의 정치적 간섭을 받는 조공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집필자의 인식에서 나왔다고 본다.⁴³⁾

다음으로 ㉡-⑤에서 특별히 어느 나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지 언급하지 않고 막연히 자국문화를 소중히 하면서 외국의 뛰어난 문화를 수용하는 전통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부분이다(㉢-⑤, ㉣-⑤). ㉤-⑤에서만 “중국과 조선에서 전해진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여”라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⑥에서 “5~6세기 남북조시대에 불교는 크게 발전하여 조선반도의 백제에는 남조 송으로부터 전해졌다”라며 백제의 불교가 宋으로부터 전해졌다고 적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서술이다. 4세기 후반 동진에서 마라난타(摩羅難陀)가 와서 백제에 불교를 전했기 때문이다.⁴⁴⁾

마지막으로 백제를 중심으로 하여 일본 최초의 불교문화를 굳이 조선반도를 통해서나 경유하여(㉠-⑦, ㉡-⑦, ㉢-⑦, ㉤-⑦) 중국의 불교가 전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도 앞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43) 연민수(2005a)「앞의 논문」, p.184

44) 『三國史記』百濟本記 枕流王 元年9月條 ; 김은숙(2011)「앞의 논문」, p.60

2.8 飛鳥・天平文化와 한반도

〈표 10〉 飛鳥・天平文化와 한반도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 내용

검정연도	출판사	서술 내용
2001	㉔扶桑社	〈飛鳥文化〉 ①太子の影響を受けて、飛鳥時代に佛教を基礎とする新しい文化がおこった。これを飛鳥文化とよぶ。中國や朝鮮から伝わった新しい文化を積極的に取り入れながら、日本人の美意識に合った建築や美術品がつくられた(p.64)。〈天平文化〉 ③奈良時代、佛教は朝廷の保護を受けていっそう發展した。當時の僧は、インドや中國から伝わった佛教の理論を研究し…遣唐使を通じてもたらされた唐の文化の影響を取り入れながら、世界にほこりうる高い精神性をもった佛教文化が花開いた。…聖武天皇のころの年號をとって天平文化とよんでいる。…また、校倉造という方法で建てられた東大寺の正倉院には、聖武天皇と光明皇后の愛用品が多數おさめられて今に伝わっている。その中には、中國や西アジア、中央アジアなどとの結びつきを示す工藝品も多く、國際色の豊かなこの時代のようなすがうかがえる。【海を渡る危険】 ②遣唐使は、630年から894年の中止まで、十數回にわたって行われた(pp.66-67)。
2005	㉔扶桑社	〈飛鳥文化〉 聖徳太子や蘇我氏が佛教を深く信仰したこともあり、日本で初めて佛教を基礎とする文化がおこった。これを飛鳥文化とよぶ(p.48)。〈遣唐使の派遣〉 ②中國で唐がおこると、朝廷は遣唐使を派遣し、文化の移入に努めた。遣唐使の派遣は、894年の中止まで、十數回にわたって行われた(p.48)。〈天平文化〉 ③奈良時代には…遣唐使を通じてもたらされた唐の文化の影響を取り入れながら、高い精神性をもった佛教文化が花開いた。この文化を、聖武天皇のころの年號をとって天平文化とよぶ。…東大寺の正倉院には、聖武天皇の愛用品が多數納められて今に伝わっている。その中には、中國や西アジア、中央アジアなどとの結びつきを示す工藝品も多い(pp.48-49)。
2009	㉔自由社	〈飛鳥文化〉 飛鳥の都を中心に佛教を基盤にした文化が生まれた。これを飛鳥文化とよんでいる。…①はじめ朝鮮半島の諸國から輸入されていた…①歸化人の家系からは鞍作止利のような優れた佛像彫刻家が出て活躍した(p.48)。〈遣唐使の派遣〉 …②一層強大な唐が榮え西域からの文化や物品も流れこんでいたので、朝廷は遣唐使を送ることで、最新の情報の摂取に務めた(p.48)。〈白鳳・天平文化〉 ③天武天皇・持統天皇のころから、ふくよかで立體的な顔立ちを持つ佛像彫刻など、唐の文化の影響が見られるようになった。この時代の文化を白鳳文化とよぶ。…②聖武天皇が亡くなると、身のまわりの品々は東大寺大佛殿近くの巨大な校倉式倉庫(現在の正倉院)に收められ今日に伝わった。そこには中國や遠く西アジアや中央アジアの文化を伝える工藝品も多數あり、當時の文化の國際色を偲ばせる。この奈良時代の國際文化を天平文化とよぶ(p.49)。

	①自由社	〈飛鳥文化〉6世紀なかばの大和朝廷に、①朝鮮半島の百濟から伝えられた佛教は、…このようにして榮えた日本初の佛教文化を飛鳥文化という(p.64)。〈遣唐使の派遣〉…②朝廷は遣唐使を派遣し、さらに大陸から學び続けた。遣唐使の派遣は十數回におよび、…唐の制度や文化をわが國に伝えた(p.64)。〈天平文化〉③奈良時代になると…平城京にはいくつもの寺院が建ち並び、渡來人の子孫や唐から歸國した人々の指導のもとに、高い精神性をもった佛教文化が花開いた。この文化を…平文化とよぶ。…東大寺の正倉院には、聖武天皇の身の回りの品々が多數おさめられて今に伝わっている。その中には、唐や中央アジア・西アジアとの結びつきを示す國際色豊かな工藝品が多い(p.65)。
2011	⑤育鵬社	〈飛鳥文化〉7世紀前半の飛鳥時代には、佛教をもとにした文化が榮えました。これを飛鳥文化とよびます。①中國や朝鮮から伝わった。新しい文化を積極的に取り入れながら、日本人の美意識に合った建築や美術品がつくられました(p.40)。〈白鳳文化〉この7世紀後半から8世紀初頭の文化を、白鳳文化とよびます。…絵画ではインドや中央アジアの佛教藝術を取り入れた法隆寺金堂壁画が知られていますが…(pp.40-41)。〈遣唐使の役割〉②わが國は唐の制度や文化を取り入れるために、7世紀前半から9世紀末まで、十數回にわたり遣唐使を派遣しました。…遣唐使や留學生たちが日本にもち帰った新しい知識や技術は、その後の日本文化の發展を支えました(p.41)。〈奈良の都に咲く佛教文化〉③平城京には大きな寺院が建てられ、遣唐使によってもたらされた唐の文化の影響を取り入れながら、高い精神性をもつ、國際色豊かな佛教文化が花開きました。この文化が最盛期をむかえた聖武天皇のころの年號をとって天平文化とよびます。…東大寺の正倉院には、聖武天皇やその妻、光明皇后の愛用品のほか、西アジアや中央アジア、中國などとの交流を示す工藝品も多數く納められていました(pp.44-45)。

飛鳥文化와 天平文化에 대해 살펴보면, 전자는 6~7세기를 말하며 후자는 8세기 奈良時代の 문화를 가리킨다. 이 시대의 서술의 공통된 특징은 遣唐使의 역할이 중시되고 奈良文化의 국제색이 풍부한 문화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제색이란 당과 중앙아시아·서아시아 등으로부터 온 문화를 말하고 東大寺의 正倉院 유물을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시각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⁴⁵⁾

먼저 飛鳥文化와 관련해서는 ㉠-①에서 “태자의 영향을 받아서 아스카시대에 불교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문화가 일어났다. 이것을 아스카문화라고 부른다. 중국이나 조선에서 전해진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일본인의 미의식에 맞는 건축과 미술품이 만들어졌다”로 기술하고 있다. 飛鳥文化를 불교문화로 정의하면서, 그 제작에 관여한 한반도문화와는 단지 ‘적극적으로 수용’으로 간단히 서술하면서 관련성을 외면하고 있다. 飛鳥文化를 정의할

45) 연민수(2011)「앞의 논문」, pp.230-231

때는 백제로부터 불교를 수용한 538년 이후 7세기중엽까지를 말하고 그 이후는 白鳳文化라고 한다. 이 시기 중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한반도와의 교류는 많았으며, 특히 백제는 승려, 지식인, 수공업자, 造佛師, 造寺師 등 수많은 불교관련 지식인과 공인들을 파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㉔에서는 일본 독자성만 강조하거나, 【바다를 건너는 위험】(㉔-②)「견당사의 파견」(㉔-②, ㉔-②, ㉔-②), 「견당사의 역할」(㉔-②)이라는 항목에서 견당사의 파견에 따른 영향만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영향은 외면하고 있다. 이후의 ㉔-①에서는 ‘조선반도와 귀화인 후손의 영향’, ㉔-①은 ‘조선반도의 백제에서 전해진 불교’라고 서술의 변화를 보였지만, ㉔-①에서는 다시 10년 전의 ㉔와 같은 서술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天平文化와 관련된 서술을 보면, 이 시기는 일본 고대국가가 완성되는 시기로 중앙집권적 천황제 율령국가가 성립하여 신라와 당, 발해 등 동아시아제국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해서는 “나라시대, 불교는 조정의 보호를 받아 더욱 발전했다. 당시의 승려는 인도나 중국에서 전해진 불교의 이론을 연구해...견당사를 통해 들어온 당 문화의 영향을 수용하면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높은 정신성을 가진 불교문화를 꽃피웠다...東大寺의 정창원에는 쇼무천황의 애용품이 다수 수납되어 현재에 전해오고 있다. 그 중에는 중국과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예품도 많아, 국제색이 풍부한 이 시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㉔-③)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후의 ㉔-③, ㉔-③, ㉔-③에서도 내용의 변함없이 ‘당 문화의 영향력’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㉔-③은 ‘도래인의 자손과 당에서 귀국한 사람들의 지도 아래’로 기술하면서 도래인의 주체를 불투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우선 동아시아제국과 일본의 교류의 횟수를 보면, 당에서 일본으로 2회, 일본에서 견당사는 12회이고, 일본의 견신라사는 31회, 신라의 견일본사는 45회로 일본의 동아시아제국의 교류는 당보다 신라가 압도적이다.⁴⁶⁾ 교류의 빈도수만큼이나 그 문화적 영향도 적지 않았다. 奈良時代에 해당하는 8세기대의 일본의 견당사는 불과 5회에 불과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사절은 단 1회도 행해지지 않았다. 이 시대의 신라 유학승(觀智, 神智) 출신들은 선진학문과 사상을 바탕으로 일본불교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고,⁴⁷⁾ 신라 律令官制의 특색인 令, 卿, 大舍, 史의

46) 7세기 후반 백제 멸망 이후 전개된 일본의 對唐·신라·발해 외교관계 및 교류의 양상을 보면 그 횟수 면에서 아래의 표가 말해주듯이 단연 신라와 발해 관계가 압도적으로 많다.

일본→당	당→일본	일본→신라	신라→일본	일본→발해	발해→일본
12회	2회	31회	45회	15회	35회

※ 출처 : 이재석(2009a)「앞의 논문」, p.264

47) 新日本古典文學大系(1989)『續日本紀(一)』岩波書店, p.187, 註8, 註9 참조 ; 新日本古典文學大系, 『續日本紀』養老元年 7月條, 養老 11月條, 天平元年 7月條 ; 日本古典文學大系(1965)『日本書紀(下)』岩波書店, p.518, 註10 참조

4등관제는 일본관제와 공통점이 있으며, 學制·喪禮제도 신라와 동일내용으로 규정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⁴⁸⁾ 그리고 大寶律令의 편찬에 참여한 18인 중, 8인이 도래계의 인물이라는 사실은 新羅法の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⁴⁹⁾ 견당사가 단절된 시기에 일본의 대신라 관계는 일본의 國制의 정비에 동반하여 국가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 학술, 사상, 제도의 수입에 역점을 둔 외교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正倉院에 소장되어 있는 물품 중에 신라라는 국명, 인명, 관위명이 새겨진 것도 다수 남아있으며, ‘買新羅物解’라는 신라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일본의 관청에서 작성한 물품명세서에 보이는 다종다양한 新羅物의 존재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⁵⁰⁾ 奈良時代の 문화의 특징을 국제성이 풍부한 문화적 현상을 말하면서도 신라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중국과 서역세계와의 관련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객관성을 상실한 서술이다.

그리고 발해의 경우도 일본의 견발해사는 15회, 발해의 견일본사는 35회에 달한다. 특히 발해는 일본의 신라, 당과의 공적교류가 단절되는 9세기 이후에는 유일한 통교국이자 교역 상대국이었다. 그런데도 8-9세기 일본의 동아시아교류사에 커다란 영향을 남긴 발해에 대한 서술이 전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9 백촌강 전투

백촌강 전투는 백제가 660년 나당 연합군에게 멸망한 이후 복신과 흑치상지, 도침 등이 왕자 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주류성과 임존성에서 일으켰던 백제 부흥운동 중에 일어난 전투 중의 하나이다. 백제 유민들이 일본에 원군을 파견을 요청하자 663년, 일본의 수군이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해 금강 하구에서 벌였던 전투를 일컫는 말이다.

48) 鈴木靖民(1985)「日本律令制の成立・展開と對外關係」『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吉川弘文館, pp.13-18

49) 鈴木靖民(2008)「日本律令の成立と新羅」『日唐律令比較研究の新段階』, 山川出版社; 同(2007)「古代アジアのなかの日本と新羅」『前近代の日本列島と朝鮮半島』山川出版社, 참조

50) 연민수(2005a)「앞의 논문」, pp.191-192; 鈴木靖民(1985)「正倉院の新羅文物」『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東野治之(1992)「正倉院文物からみた新羅文物」『遣唐史と正倉院』岩波書店

〈표 11〉 백촌강 전투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 내용

검정연도	출판사	서술 내용
2001	㉠扶桑社	〈白村江の敗戦〉 7世紀のなかばになると、新羅が唐と結んで百濟を攻めた。…300年におよぶ百濟とのよしみはもとより、①半島南部が唐に侵略される直接の脅威を無視できなかった。中大兄皇子は、662年、②百濟に大軍と援助物資を船で送った。唐・新羅の聯合軍との決戦は、663年、半島南西の白村江で行われ、2日間の壮烈な戦いののち、日本軍の大敗北に終わった(白村江の戦い)。③日本の軍艦400隻は燃え上がり、天と海を炎でまっ赤に焼いた。④こうして百濟は滅亡した(p.51)。〈亡命百濟人〉⑤百濟からは、王族や貴族をはじめ、一般の人々が1000人規模で日本列島に亡命して、一部は近江(滋賀県)、一部は東國に定住を果たした(pp.51~52)。
2005	㉢扶桑社	〈白村江の戦いと國防の備え〉 7世紀の半ば、朝鮮半島では、新羅が唐と結んで百濟を攻めた。日本と300年の親交がある百濟が敗れ、①半島南部が唐の支配下に入ることは日本にとっても威脅だった。そこで、中大兄皇子を中心とする朝廷は、②百濟を助けるために、多くの兵と物資を船で送った。唐・新羅聯合軍との決戦は、663年、半島南西部の白村江で行われ、2日間の壮烈な戦いののち、日本側の大敗北に終わった(白村江の戦い)。③日本の軍艦400隻は燃え上がり、空と海を炎で眞っ赤に染めたという。④こうして百濟は滅亡した。…いっぽう、⑤百濟からは、王族や貴族をはじめ、一般の人々までが日本に亡命してきた(p.40)。
2009	㉡自由社	〈白村江の戦いと國防の備え〉 7世紀の半ば、朝鮮半島では、新羅が唐と結んで百濟を攻めた。日本と300年の親交がある百濟が敗れ、①半島南部が唐の支配下に入ることは日本にとっても威脅だった。そこで、中大兄皇子を中心とする朝廷は、②百濟を助けるために、多くの兵と物資を船で送った。唐・新羅聯合軍との決戦は、663年、半島南西部の白村江で行われ、2日間の壮烈な戦いののち、日本側の大敗北に終わった(白村江の戦い)。③日本の軍艦400隻は燃え上がり、空と海を炎で眞っ赤に染めたという。④こうして百濟は滅亡した。…いっぽう、⑤百濟からは、王族や貴族をはじめ、一般の人々までが日本に亡命してきた(p.40)。
2011	㉣自由社	〈白村江の戦いと國防の備え〉 7世紀のなかば、朝鮮半島では新羅が、唐と結んで百濟を滅亡させた。日本と300年の親交がある百濟が滅び、①半島南部が唐の支配下に入ることは日本にとっても威脅だった。そこで、②百濟を復興するための救援要請を受けた朝廷は、多くの兵と物資を送った。唐・新羅聯合軍との決戦は、663年、半島南西部の白村江で行われ、2日間の壮烈な戦いののち、日本・百濟側の大敗北に終わった(白村江の戦い)。③日本の軍艦400隻は燃え上がり、空と海を炎で眞っ赤に染めた。…⑤百濟からは、王族や貴族をはじめ、一般の人々までが日本に亡命してきた(p.56)。

2011	㉔育鵬社	〈白村江の戦いとその影響〉朝鮮半島では唐と結んだ新羅が優勢となり、高句麗、百濟の軍を破りました。わが國にとって、親交のあった百濟を失うことは、①朝鮮半島での立場を失うだけでなく、わが國の安全をもおびやかす出来事でした。②百濟からの救援の依頼もあり、わが國は大軍を送りました。しかし、白村江の戦い(663年)で唐・新羅聯合軍に敗れ、朝鮮半島から撤退せざるを得なくなりました。④その後、百濟は完全に滅亡し…(pp.38~39)。
------	------	--

먼저 백촌강 전투의 파병 이유에 대해서는 “반도남부가 당에 침략 받는 직접적인 위협을 무시할 수 없었다”(A-①)라고 기술되었던 부분이 이후의 교과서에서는 “반도남부가 당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일은 일본에 있어서도 위협이었다”(B-①, C-①, D-①), “조선반도에 서의 발판을 잃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었다”(E-①)라고 일본에게 위협이었으므로 원군을 파견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한 후 왜국이 백제부흥군의 지원을 위해 파병한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백제의 외교적인 노력, 양국의 오랜 기간 동안의 우호적 관계, 왜왕권 내부의 분열적 요인에 의해 권력집중의 한 형태, 백제로부터의 선진문물의 수입에 대한 욕구 등 많은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⁵¹⁾ 일본 열도 위기론도 그 중의 하나이지만⁵²⁾, 이러한 논리를 과도하게 제시할 경우, 방위론적 전쟁론이 아니라 왜병의 출병에 의한 한반도남부를 당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일본 열도의 안정을 꾀한다는 이른바 제국주의 전쟁론과도 상통한다.⁵³⁾

이어서 “대군과 원조물자를 보냈다”(A-②), “백제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병력과 물자를 배로 보냈다”(B-②, C-②), “많은 병력과 물자를 보냈다”(D-②), “우리나라가 대군을 보냈다”(E-②)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일본이 백제를 구하기 위해 백촌강 전투에 참전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군함 400척은 불타올라, 하늘과 바다를 화염으로 새빨강게 불태웠다”(A-③~D-③)라고 기술하면서 백촌강 전투에서의 패배로 인한 일본 측의 피해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에서 사용하기에는 다소 자극적인 표현이라는 점도 두드러진다. 또한 백제는 나당 연합군에게 멸망한 후였기 때문에, “백제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은 서술이며, “이리하여 백제가 멸망했다”(A-④, B-④, C-④), “그 후 백제가 완전히 멸망해”(E-④)라는 뒤이은 서술도 수정되어

51) 백촌강 전투의 왜병 파병요인에 대한 학설사 정리는 拙稿(1998)「百濟의 對外外交와 王族」改新政權의 성립과 東아시아 外交」『고대한일관계사』해안 참조.

52) 이것은 당의 위협으로부터 왜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방위 전쟁론이다(山尾幸久(1963)「大化前後の東アジアの情勢と日本の政局」『日本歴史』229; 井上光貞(1975)「大化改新と東アジア」『岩波書店日本歴史』2・古代2).

53) 연민수(2008)「고대사 서술과 역사인식」『일본 역사서의 왜곡과 진실』경인문화사, p.65

야 할 부분이다.⁵⁴⁾ 즉 백촌강 전투의 과병 목적을 백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한 백제와의 우호적인 관계 때문이었다고 사실대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에서 “백제에서 왕족과 귀족을 비롯해, 일반인들이 1000명 규모로 일본열도에 망명해서”라고 ㉠-㉤까지 기술되어지다 ㉥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는 ‘망명’이란 용어의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망명’이란 정치적 탄압이나 종교적·민족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도피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자국보다는 정치·경제적으로 우위의 나라로 몸을 피하게 것이 통상적이다. 백제의 멸망으로 많은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이주해 왔다는 사실을 ‘망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설명한 것은 당시 일본이 백제보다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집필자의 의도가 엿보인다.

2.10 年號와 律令의 제정문제

〈표 12〉 年號와 律令의 제정문제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 내용

검정연도	출판사	서술 내용
2001	㉠扶桑社	〈大寶律令と年號〉㉡東アジアで、中國に學びながら獨自の律令を編み出した國は日本のほかにはない。新羅は、唐の律令の中から自國に役立つ内容だけを拾い出して用い、みずからの律令をつくらうとしなかった。わが国では、日本という國號が定まったこの時期以來、年號が連續して使用されるようになった。㉢わが国では、日本という國號が定まったこの時期以來、年號が連續して使用されるようになった。一方、新羅は唐の年號の使用を強制され、これを受け入れた。日本における律令と年號の獨自性は、わが国が中國に服屬することを拒否して、自立した國家として歩もうとした意思を對外に示すものであった(p.54)。
2005	㉢扶桑社	〈大和の改新〉㉣この年、朝廷は日本で最初の年號を立てて、大化元年とした。東アジアで、中國の王朝が定めたものとは異なる、獨自の年號を定めて使用し續けた國は日本だけだった(p.39)。〈大寶律令〉㉤唐の朝貢していた新羅が、獨自の律令をもたなかったのに対し、日本は、中國に學びながらも、獨自の律令をつくる姿勢をつらぬいた(p.42)。
2009	㉣自由社	〈大化の改新〉㉣この年、朝廷は日本で最初の年號を立てて、大化元年とした。東アジアで中國の王朝が定めたものとは異なる、獨自の年號を定めて使用し續けた國は日本だけだった(p.39)。〈大寶律令〉㉤唐に朝貢していた新羅が、獨自の律令をもたなかったのに対し、日本は、中國に學びながらも、獨自の律令をつくる姿勢をつらぬいた(p.42)。

54) 송영심·오정현(2005)『앞의 책』, p.171

2011	①自由社	〈大化の改新〉①この年、朝廷は日本で最初の年號を立てて、大化元年とした。東アジアで中國の王朝が定めたものとは異なる、独自の年號を制定して使用し續けた國は、日本だけだった(p.55)。〈大寶律令〉②新羅は唐の律令が適用され、独自の律令をもたなかったのに対し、日本は、中國に學びながらも、独自の律令をつくりあげた(p.60)。
	⑤育鵬社	〈大化の改新〉①日本では645年を「大和」としたのが最初。古くは一代の天皇のあいだでも改められたが、明治時代以後は一世一元の制で天皇一代のあいだは一つの年號となった。中國の皇帝による支配からの獨立を示している(側註①)(p.38)。〈大寶律令の制定〉②唐の制度にならい、わが國のきまりや制度をつくろうとする動きは、天智天皇の時代から続けられていました。これが大寶律令として完成したのは、701(大寶元年、文武天皇の時代でした。律は刑罰について、令は政治のしくみについての定めであり、これによってわが國は法に基づいて政治を行う律令國家となりました(p.42)。

‘연호의 제정’과 ‘율령의 시행’ 등은 고대국가를 지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국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인 장치이기도 하다. 독자적인 연호의 제정이야말로 왕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고대로부터 중국의 책봉을 받는 동아시아제국은 중국연호의 사용을 강제 받는 경우가 있어 자국의 연호를 사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느끼게 마련이었다.⁵⁵⁾

먼저 연호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①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가 정해진 이 시기 이래 연호가 연속해서 사용되게 되었다. 한편 신라는 당의 연호의 사용을 강요받아 이것을 받아들였다. 일본에서 율령과 연호의 독자성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복속하는 것을 거부하여 자립한 국가로서 걸어가려고 한 의사를 내외에 보여준 것 이었다”라고 기술되었던 부분이 ㉢-①, ㉣-①, ㉤-①에서는 “이 해 조정은 일본에서 최초의 연호를 세워서 다이카 연호로 삼았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왕조가 정한 것과는 다른 독자의 연호를 제정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나라는 일본뿐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①은 “일본에서는 645년을 「大和」라고 한 것이 최초…메이지시대 이후에는 一世一元의 제도로 천황 재위동안 하나의 연호만을 사용했다. 중국 황제에 의한 지배로부터의 독립을 나타내고 있다”라며 표현만 달리해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만이 중국의 연호가 아닌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는 서술은 모순이다. 우선 고구려의 연호 사용의 예를 살펴보면, 414년에 건립된 광개토대왕비문에는 「永樂」이라는 연호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어 이미 4세기 후반 대에는 독자적 연호를 제정하여 사용하였다.

55) 연민수(2005a)「앞의 논문, p.192

경주의 서봉총에서 발견된 은함에 새겨진 고구려 長壽王 39년(451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延壽元年的 연호⁵⁶⁾, 경남 의령군에서 발견된 延嘉 7年銘이 새겨진 금동불도 고려국(고구려)이라는 국명이 명기된 것으로부터 고구려의 逸年號로 추정된다. 또 충북 증원군에서 발견된 석가상의 광배에 새겨진 建興 5年銘의 연호는 고구려 연호설, 백제 연호설로 나뉘어져 있으나 어느 것을 취해도 한반도의 연호이고, 평산시 평천리에서 발견된 永康 7年銘의 연호도 고구려 연호라고 생각된다.⁵⁷⁾

신라는 法興王 23년(536년)에 최초로 建元이란 연호를 제정하였고,⁵⁸⁾ 眞興王 12년(551년)에 연호를 개정하여 開國이라 하였고, 同王 29년(568년)에 大昌, 同王 33년(572년)에 鴻濟의 연호를 연이어 사용하였다.⁵⁹⁾ 眞平王 6년(585년)에는 建福 연호를, 善德女王 3년(634년)에는 仁平 연호를, 그리고 眞德女王 원년(647년)에는 太和 연호를 제정, 사용하였다.⁶⁰⁾ 백제의 경우는 아직 연호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七支刀에 새겨진 연호가 백제 연호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금석문의 발견을 기대해 본다.⁶¹⁾

이렇듯 삼국에서는 7세기 이전에 중국의 연호를 사용한 적이 없고 제각기 독자의 연호를 제정하여 사용하였다. 다만 ㉠에서 서술한 신라의 중국 연호 사용은 당의 종용에 의한 것이 사실이다. 眞德王 2년(648년) 당 태종은 신라 사신 邯峽許에게 신라의 독자적인 연호 사실을 물은 바 있고, 2년 뒤인 眞德王 4년 신라는 당의 永徽 연호를 사용했다.⁶²⁾ 그러나 당시 삼국의 항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음을 생각할 때, 이것은 당과의 제휴를 모색하던 신라의 외교정책의 일환이었음을 간과해서 안 된다. 다시 말해서 法興王 이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던 신라가 이를 포기하고, 중국의 연호를 수용한 것은 외교적 계산에 따른 것이었다.⁶³⁾

다음으로 율령의 제정에 대해서 ㉠-㉡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으로부터 배우면서 독자적 율령을 편찬한 나라는 일본 밖에 없었다. 신라는 당의 율령 가운데 자국에 필요한 내용만을 뽑아서 사용하고, 자신의 율령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서술되었던 부분이 ㉠-㉡, ㉢-㉡에서는 “당에 조공하고 있던 신라가 독자의 율령을 갖지 않았던 비해 일본은 중국에 배우면서도 독자의 율령을 만드는 자세를 관철했다”로, ㉠-㉡는 “신라는 당의 율령이 적용되

56) 손영중(1966)「금속문에 보이는 삼국시기의 몇 개 년 호에 대하여」『역사과학』4호

57) 고구려연호에 대한 제설은 田中俊明(1981)「高句麗の金石文-研究の現況と課題-」『朝鮮史研究會論文集』18

58) 『三國史記』新羅本紀 法興王 23年條

59) 『三國史記』新羅本紀 眞興王 12年, 29年, 33年條

60) 『三國史記』新羅本紀 眞平王 6年條, 善德女王 3年條, 眞德女王 元年條

61) 연민수(2005a)「앞의 논문」, pp.192-193

62) 『三國史記』新羅本紀 眞德王 2年 冬 및 4年 是歲

63) 서영대(2001)「앞의 논문」, pp.49-51

어 독자의 율령을 갖지 않았던데 대해, 일본은 중국에 배우면서도 독자의 율령을 만들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일본의 자주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신라의 경우를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㉔-②에서는 “당의 제도를 모방해, 우리나라의 규칙이나 제도를 만들려는 움직임은 텐지천황의 시대부터 계속되었다. 이것이 대보율령으로서 완성된 것은 701년, 몬무천황 시대였다. 율은 형벌에 대해서, 령은 정치의 구조에 대한 규정이며, 이것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법에 기초해서 정치를 행하는 율령국가가 되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독자의 율령을 가진 것은 일본밖에 없다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고구려는 小獸林王 3년(373년)에, 신라는 法興王 7년(521년)에 율령을 반포했던 사실이 『三國史記』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⁶⁴⁾ 그리고 신라의 경우는 최치원이 景明王 8년(924년)에 지은 「鳳巖寺 智證大師 寂照塔碑」에서 “고구려의 阿道가 우리나라로 건너온 것은…우리 法興王께서 율령을 제정한 지 8년만이다(刪律條八載)”라고 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⁶⁵⁾ 뿐만 아니라 이후 신라에서는 율령을 보완하는 格·式을 제정했다는 기록도 확인된다.⁶⁶⁾ 이에 비해 고구려·신라의 율령 반포를 부정할 자료는 없다.⁶⁷⁾ 일본만이 독자의 율령을 제정했다는 것은 일본 우월적 표현이고 타국에 대한 비하로서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역사인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3. 마치며

이상과 같이 후소사관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고대 한일관계사 서술을 살펴보았다.

후소사관 교과서의 고대 한일관계사 서술에서 광개토왕비문, 『日本書紀』, 『宋書』倭國傳 등의 사료를 일본적 입장에서 해석하여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우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 사료에 기초한 기존의 임나일본부설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왜왕권의 가야지역 등 한반도남부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 세력권의 형성을 주장하는 서술은 여전히 견지되고 있다. 문화적인 서술에서는 도자문화, 철기, 토기, 각종 기술, 유교, 불교문화 등 다양한 제도적,

64) 『三國史記』新羅本紀 法興王 7年 春正月 頒示律令; 『三國史記』高句麗本紀 小獸林王 3年 始頒律令

65)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1992)『譯註 韓國古代金石文』, p.178

66) 『三國史記』新羅本紀 武烈王 元年 5月 命理方府令良首等 詳作律令脩定理方府六十餘條; 『三國史記』新羅本紀 哀莊王 4年 8月 頒示公式二十餘條

67) 서영대(2001)「앞의 논문」, pp.49-50

기술적 문화의 전파에서 한반도 도래인의 영향을 외면하거나 소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발해와 관련해서는 건국사실부터 일본과의 교류, 멸망에 이르기까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사의 영역 표시에서도 제외시키고 있어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서술에서 기존의 연구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중심의 독선적 우월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의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자국중심적, 자국우월적인 역사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일간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형식이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역사교과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교차적으로 상대국의 교과서를 검토하고 함께 문제점을 시정하는 쌍무적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자국의 입장만을 강조한 일방적인 기술에서 벗어나 객관화해 가는 기술이 필요하며, 양국관계의 기본적인 역사사실을 충실하게 반영시켜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특정 역사에 대한 사실 인식과 의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는 태도도 가짐으로써 앞으로의 역사 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參考文獻】

- 국사편찬위원회(1993)『한국사』
 김은숙(2010)「도래인의 문화전수」『한일역사쟁점논집』
 _____(2011)「2011년 검정통과 일본 중학 역사교과서의 고대 한국관련 서술내용 분석」한일관계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김태식(1993)『가야연맹사연구』일조각
 나행주(2011)「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역사관과 고대사 서술-2011년 검정통과본의 분석을 중심으로-」『동국사학』51
 盧重國(1988)『百濟政治史研究』一潮閣
 盧泰敦(1975)「三國時代의 ‘部’에 관한 연구」『韓國史論』2
 박현숙(2010)「한·일 역사교과서에 보이는 가야사 인식」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영대(2001)「日本 中學校 歴史教科書の 韓國古代史 敘述과 문제점」『고조선단군학』5
 손영중(1966)「금속문에 보이는 삼국시기의 몇 개 년 호에 대하여」『역사과학』4호
 송영심·오정현(2005)『일본의 역사왜곡 21가지』미르북스
 연민수(2003)「고대 한일관계사의 쟁점과 사료-임나문제와 백강전투를 중심으로-」『일본역사연구』17
 _____(2005a)「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古代史 서술과 歷史認識」『한국사연구』129
 _____(2005b)「古代日本の 한반도계 氏族과 역할-西文氏와 東漢氏를 중심으로-」『임나문제와 한일관계』
 _____(2008)「고대사 서술과 역사인식」『일본 역사서의 왜곡과 진실』경인문화사
 _____(2011)「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古代史像과 歷史認識」『역사교육논집』47

- 이근우(2008)『新しい歴史教科書』의 역사인식과 선사·고대사 서술』『일본역사연구』27
- 李成市(2001)「古代史の問題點は何か」『歴史教科書何が問題か』岩波書店
- 이영식(2004)「가야국명의 재검토」『가야문화』17
- 이원순·정재정(2002)『일본 역사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동방미디어
- 이재석(2009a)「09년도 ‘새역모’ 역사교과서(自由社版)의 일본고대사 서술 검토」『역사교육논집』43
- _____(2009b)「‘새역모’의 일본 古代史 구상의 특질과 문제점-自由社 교과서 및 扶桑社〈교사용 지도서〉를 중심으로-」『한일관계사연구』33
- 조범중(2010)「삼국의 건국시기 논의」『한일 역사쟁점논집』(전근대편)
- 한국고대사회연구소(1992)『譯註 韓國古代金石文』
- 井上光貞(1975)「大化改新と東アジア」『岩波書店日本歴史』2・古代2
- 上田正昭(1989)「渡來と歸化と」『古代の道教と朝鮮文化』人文書院
- 金關丈夫(1976)『日本民族の起源』法政大學出版局
- 木村茂光・花村統由(2000)「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古代日韓關係史」『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해안
- 末松保和(1956)『任那興亡史』吉川弘文館
- 田正昭(1965)『歸化人』中央公論社
- 鈴木靖民(1985)「日本律令制の成立・展開と對外關係」『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吉川弘文館
- _____(1985)「正倉院の新羅文物」『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吉川弘文館
- _____(2007)「古代アジアのなかの日本と新羅」『前近代の日本列島と朝鮮半島』山川出版社
- _____(2008)「日本律令の成立と新羅」『日唐律令比較研究の新段階』山川出版社
- 關晃(1983)「歸化人」『國史大辭典』4, 吉川弘文館
- _____(1993)「歸化人」『日本史大辭典』2, 平凡社
- 中橋孝博(2002)『倭人の形成』吉川弘文館
- 田中俊明(1981)「高句麗の金石文-研究の現況と課題-」『朝鮮史研究會論文集』18
- 勅使河原章(2005)「歴史教科書は古代をどう描いてきたか」『新日本出版社』
- 寺澤薫(1996)「日本稻作の系譜と照葉樹林文化論」『季刊考古學』37
- _____(2000)『日本の歴史』2, 講談社
- 東野治之(1992)「正倉院文物からみた新羅文物」『遣唐史と正倉院』岩波書店
- 礪波護・武田幸南(1997)『隋唐帝國と古代朝鮮(世界の歴史 6)』中央公論社
- 山尾幸久(1963)「大化前後の東アジアの情勢と日本の政局」『日本歴史』229

논문투고일 : 2013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3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3년 10월 09일
 2차 수정일 : 2013년 10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3년 10월 21일

< 要 旨 >

일본 역사교과서의 고대 한일관계사 서술 분석

- 후소사(扶桑社)판 교과서를 중심으로 -

본고에서는 후소사판 일본 역사교과서의 고대 한일관계사 중 논란이 되는 부분에 나타난 서술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발행된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일부 용어의 삭제 혹은 표현만 달리하였을 뿐 자국사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한국사를 폄하하는 기본 논조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교과서의 고대 한일관계사 서술에서는 여러 사료를 일본적 입장에서 해석하여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우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문화적인 서술에서는 도작문화를 비롯 철기, 토기, 불교 등 다양한 제도적, 기술적 문화의 전파에서 한반도 도래인의 영향을 외면하거나 소략하게 기술하면서 당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발해와 관련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한국사의 영역 표시에서도 제외시키고 있는 점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내용의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자국중심적, 자국우월적인 역사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앞으로 자국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서술에서 벗어나 객관화해 가는 기술도 필요하며, 양국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역사에 대한 사실 인식과 의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향후 역사 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Analysis of the Description of Ancient History of Korea-Japan Relations in Japanese History Textbooks

-with A Focus on the Textbook from Fusosha Publishing-

The thesis has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description of controversial issues of ancient history of Korea-Japan relations as provided by History of Japan textbook from Fusosha Publishing.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textbooks published between 2001 and 2011 has confirmed that while some terms that were potentially problematic were deleted or modified, the basic tone remained unchanged in that they still emphasized the superiority of Japanese history while disparaging Korean history. In describing the ancient history of Korea-Japan relations, the Japanese textbooks interpret historical artifacts from their perspective to argue for political superiority over the Korean Peninsula, and in description of culture, they ignore or briefly state the influence from those people who arrived from the Korean Peninsula on transmission of diverse institutions and technologies including rice farming, iron tools, earthen tools, and Buddhism, instead stressing the influence from Tang Dynasty. Besides, with regard to Balhae, they do not even mention the kingdom and exclude it from the geographical boundary of the Korean history, which should be corrected in the future. After all, such history textbooks would inspire a historical perspective that places Japan at the center and in a superior position. The ability to escape a description that emphasizes only the stance of Japan is necessary, and future historical progress would be possible only when the two countries concede that differences are inevitable in perceiving historical facts and construing them.